



조선시대 사대부士大夫 가풍家風の 계승 양상 연구

— 의성김씨 학봉가문鶴峯家門을 중심으로

김학수*

차례

1. 머리말
2. 학봉가풍鶴峯家風 형성과 계승의 공간적 배경 : 금계金溪의 인문환경
3. 학봉가풍의 갈래와 계승의 토대 : 김집金集의 계제적階級的 역할론
4. 17세기 학봉가풍의 계승 양상 : 의리론義理論과 근왕론勤王論을 중심으로
5. 18세기 학봉가풍의 발전 양상
: 『鶴峯先祖行狀(학봉김선신 행장)』과 『여자초학女子初學』을 통해 본
학봉가의 여성교육론女性教育論
6. 19세기 학봉가풍의 변화 양상
: 출사의 재개와 학봉경세론鶴峯經世論의 응용
7. 맺음말

요약

이 글은 의성김씨 학봉가鶴峯家의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가풍家風과 그 계승양상을 미시적으로 살핀 것이다. 인간의 인식과 행동을 가장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정家庭이고, 가정의 분위기, 즉

* 金鶴洙,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한국학부

가풍家風의 양질量質과 영속성의 정도는 개인 또는 집안의 사회적 격을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 한 개인의 지적知的 자산은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교육과 경험을 통해 축적됨에도 가정은 누구나 경험하는 '기초과정基礎科程' 정도로 치부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고는 국가를 완성시키는 핵심 단위로서의 가정의 역할과 역량에 주목하면서 가정의 인문적人文的 성향인 가풍이 어떤 방식으로 계승·발전·변화하고, 또 그것이 국가·사회적 상황과 어떻게 접목되어 상보적 기능을 하는지를 김성일金誠一(1538~1593) 후손인 학봉가鶴峯家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이다.

주제어

: 김성일金誠一, 학봉가학金誠一, 김집金漬, 김시추金是樞, 김주국金柱國, 김종수金宗壽, 김진화金鎭華, 의리론義理論, 예법지가禮法之家, 여자초학女子初學

1. 머리말

이 글은 의성김씨 학봉가鶴峯家 가풍家風의 특징과 그 계승 양상을 통시적으로 개관하고, 그 의미를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학봉가풍'의 학문적 실체이자 연원이 되는 김성일에 대한 연구는 정치·외교·국방·사상·문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고¹

1 학봉김선생기념사업회,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학봉김성일순국사백주년기념논문집), 여강출판사, 1993; 金時晃, 『鶴峯文學研究』, 영남사, 1998; 권오영, 『鶴峯 金誠一과 安東地域의 退溪學脈』, 『한국의철학』 28,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0; 권오영, 『鶴峯 金誠一의 學問性向과 歷史意識』, 『민족문화』 25, 한국고전번역원, 2002; 이현진, 『학봉 김성일의 예학과 『상례고증』』, 『민족문화논총』 4, 신구문화사, 2008; 김정신, 『鶴峯

특히 영남학파嶺南學派 연구의 일환에서 진행된 학봉학맥鶴峯學脈 또는 문파門派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김성일金誠一(1538~1593)의 ‘학學’과 ‘행行’이 집안 또는 자손들에게는 어떤 양상으로 전수되었고, 또 그것이 ‘학자·관료가문’으로서의 ‘학봉가풍鶴峯家風’을 유지함에 있어 어떤 자양분으로 기능하였는지에 대한 천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른바 ‘가풍家風’ 또는 ‘가학家學’에 대한 연구는 ‘학파學派’ 연구에 치중된 사상사 연구의 보완재로 기능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선의 지식문화가 어떤 구조 속에서 생산·전승·확산되는지를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본다. 조선후기 영남학嶺南學의 전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봉가문의 경우는 그런 사례로서의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19세기까지에 한정하더라도 학봉가문의 역사는 300년에 이르고, 등장하는 인물 또한 적지 않아 전체를 수렴하여 요점을 짚어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즉, 학봉가풍 계승양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연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손(內外孫)을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만 우선 본고에서는 가통家統의 계승자인 종손계열(김집金集~김진화金鎭華)을 중심으로 검토했음을 밝혀둔다.

조선의 통치이념인 주자학의 핵심적 가르침은 ‘효孝’이고, 효의 배움과 실천은 가정을 그 영역으로 삼는다. ‘이효위충以孝爲忠’을 지선의 가

金誠一의 學問論과 居鄉觀 — 「童子禮」·「居鄉雜儀」의 간행과 유포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29, 태동고전연구소, 2012. 1590~91년 통신사행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는 『한일관계사연구』 43(한일관계사학회, 2012), 임진왜란 당시의 역할에 대한 성과는 『남명학연구』 41(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4)에 수록되어 있다.

치로 삼은 것에서 보듯 국가에 대한 충도 효에서 바탕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조선의 양반들에게 있어 가정은 미래의 삶과 행위의 실험 내지는 실습의 공간이자 울타리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의 양질量質은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역할을 예비 결정하는 의미를 지녔다.

지금까지 조선의 사상사思想史, 지성사知性史는 뛰어난 개인 내지는 학파學派 중심의 분석에 치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상을 결정하는 가정적 환경에 대한 천착은 부족했고, 학파 중심의 탐색은 개인의 특질을 마모시켜 유형화된 인물상을 양산量産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고는 국가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인식과 행위가 가정 또는 가정교육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고, 조선후기 영남 사람의 핵심 구성원의 하나로 엄격한 질서 속에서 가법家法을 지켜온 의성김씨 학봉가鶴峯家의 예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2. 학봉가풍鶴峯家風 형성과 계승의 공간적 배경

: 금계金溪의 인문환경

안동부 서후면에 위치한 금계金溪는 금지金池·금제琴堤·검제黔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는데, ‘문소김씨聞韶金氏가 성거盛居하면서 지금의 이름, 즉 금계金溪로 고쳤다’는 『금계지金溪志』 편찬자의 설명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못(池) 또는 둑(堤)과 관계된 마을이름이 특정 씨족으로 인해 개칭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의 문소김씨가 학봉가문을 지칭하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학봉가문은 지명을 바꿀만한 인간적 영향력을 행사한 셈인데,² 금계마을을 ‘학봉가학鶴峯家學·가풍家風’의 양성과

화산의 공간적 배경으로써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³

능동(陵洞)에 안동 역사의 개산조(開山祖)에 해당하는 권행(權幸: 權太師) 및 장정필(張貞弼: 張太師)의 묘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안동(古阜·福州)의 옛 부치(府治)가 이 일대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금계 일대가 안동의 행정 및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반증한다. 고려말~조선 초기까지 안동의 유력자였던 안동권씨(安東權氏·흥해배씨(興海裴氏)⁴ 세거지 및 묘역이 이 일대에 분포하는 것도⁵ 이런 추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학봉가문의 금계 정착이 처가 안동권씨와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

2 金誠一이 혼인 이후 분가한 곳은 임동 납실(狹谷)이었고, 처가마을인 금계 입거가 이루어진 것은 1582년이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 10년 동안 김성일은 사환으로 인해 사실상 금계에 거주할 기회가 없었다. 1592년 12월 김성일이 부인 안동권씨에게 보낸 편지의 수신처가 납실인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김집 역시 주로 납실(雲谷) 등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되며, 금계에 第宅을 짓고 본격적인 거주가 시작된 것은 손자 金是樞 대이다. 김시추가 승려 性智의 도움을 받아 행정 아래에 건립한 風雷軒·永慕齋가 학봉가의 금계 定居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다(『金溪志』 「第宅」, 〈文忠公舊宅〉).

3 금계마을은 福堂·仕望·丹鄭·知谷·扶老洞·東蕪地·基谷·金莊洞·孝子門·坪·晚雲·鏡光·刁將洞·眉山·樊口·後谷·春坡·佳陰洞·陵洞·造火谷·鳳林 등 21개 坊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학봉중가가 있는 곳은 菴福山 아래 福堂이다.

4 고성이씨 안동 입향조 李璿은 1487년 안동의 유력자 12인과 友鄉契라 불리는 친목계를 결성했다. 徐居正이 序詩를 쓴 이 계모임은 고성이씨의 안동 정착을 지역의 유력가문에서 인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계의 회원들은 權自謙·裴孝壽·李璿·南敬身·盧孟信·裴孝訥·南致恭·權琨·南致晶·南致仁·裴稠·裴禎·權叔衡 등 13인인데, 안동권씨·흥해배씨·영양남씨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회원 가운데 좌목 제7위에 기록된 權琨이 金誠一의 妻高祖父이다. 우향계축의 원본은 冲齋遺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보물 제896호로 지정되어 있다. 權琨의 7세손인 權斗寅이 우향계원의 자손 南斗會로부터 이를 전해받아 家藏하게 된 것이다(權斗寅, 『荷塘集』 卷5, 〈書先祖判書公友鄉契軸後〉; 南夢賚, 『伊溪集』 續集 卷2, 〈友鄉契帖後識〉)

5 흥해배씨의 경우 裴尙志의 아들 裴權·裴杠, 손자 裴孝存의 묘소가 있고, 안동권씨는 權雍·權德鳳·權德操 등의 묘소가 있다. 權雍은 柳沼를 사위로 맞았는데, 그 증손 柳仲郭의 묘소가 陵洞에 있는 것도 혼인 관계의 영향이었다.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15~16세기를 거치면서 금계에는 흥해배씨 배상지(裴尙志-삼익(三益) 가문, 경주이씨 이종준(李宗準) 가문, 안동권씨 권개(權珮-호문(好文) 가문, 안동권씨 권곤(權混-덕황(德凰) 가문, 안동권씨 권예(權輓-창업(昌業) 가문, 안동장씨 장흥효(張興孝) 가문 등이 학연과 처연의 중층적 세의를 바탕으로 ‘사회·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⁶ 특히 김성일의 권문(權門) 출입과 학봉가의 금계(金溪) 정착은 이 공동체의 운영과 유대 강화에 있어 활력소로 작용했다.

김성일·배삼익·권호문의 퇴계학적 동문성은 배용길(裴龍吉·권행기(權行可(次孫 是杓의 처부)를 통해 학봉학맥으로 확장되었고, 이성(異姓) 형제와 다를 바 없었던 권호문(權好文) 집안과의 세의는 ‘성산세강계(星山世講契)’를 통해 지속성을 담보했다.⁷ 여기에 더해 장흥효의 학봉학통 계승은 금계가 퇴계학파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학봉문파(鶴峯門派)의 공간적 거점으로 인식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봉가를 정점으로 장흥효(張興孝·권창업(權昌業)(1600~1663) 집안의 학통적 순환성은 학봉가풍의 종적 지속성과 횡적 확장성을 확보하는 바

6 1560년에는 裴三益(1534~1588) 주관하에 8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蕙竹契’라 불리는 世講契가 결성되어 마을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했고, 임란 이후에는 아들 裴龍吉에 의해 중수된 바 있다(裴龍吉, 『琴易堂集』 卷5, 〈金溪村世契會跋〉). 한편 1678년에는 김성일의 증손 金燿의 定跟堂에서 眞率會가 결성되어 마을의 친목 구심체로 기능했다(李嵩逸, 『恒齋集』 卷5, 〈金溪眞率會序〉). ‘蕙竹契’와 ‘眞率會’가 친목공동체의 구심체였다면 교육의 거점은 鏡光書堂과 숙종연간인 1686년 裴尙志·李宗準·張興孝의 제향처로 승격되는 鏡光書院이었다. 경광서당 및 서원은 김성일과는 관계가 없지만 아들 김집은 講堂의 건립, 재정의 확충, 院規의 제정 등 경광서당의 교육기반 정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金漢, 『愛景堂遺稿』 附錄, 〈家狀〉).

7 金宗壽, 『聽松遺稿』〈星山講誼契序〉.

탕이 되었는데, 그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경당문인(敬堂門人) 권창업이었다.

(권창업은) 일찍이 경당(敬堂)(장흥효(張興孝) 선생을 종학(從學)하여 위기치학(爲己之學)의 요체를 알았다. 『중용(中庸)』·『대학(大學)』 두 책을 정일(精)하게 강독(講讀)하여 진지(眞知)의 실천에 힘썼다. 장씨(張氏)(장흥효) 문인으로서 금계(金溪)에 사는 이들 가운데 그의 문하를 왕래하며 참정(參訂)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심지어 경당을 섬기 듯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화산(花山)의 세족(世族)으로서 돈후(敦厚)함과 학문을 갖춘 이로는 공을 으뜸으로 쳤다.⁸

권창업은 김성일 ⇒ 장흥효로 이어지는 학봉학의 실질적 계승자로서 금계 일대의 학문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김성일의 증손 김규(金燧)(1602~1685)가 그에 대해 각별한 동문의식을 표명한⁹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성일의 현손 김세기(金世基)(1622~1686)의 권창업 문하 출입과 권창업의 아들 권태시(權泰時)(金是樞)의 외손서가 김성일의 증시론(贈謚論)을 주도한 것에서도¹⁰ 양가 사이의 학문적 유대감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학봉가는 척연을 통해 양질의 지식문화적 양성 구조를 만들어 갔다. 이것은 영남학(嶺南學)(退溪學)의 보편성 위에서 학봉가풍의 특수성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 본질적으로 종적인 수수를 강조하는 지닌 가풍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학술문화적 경향과 궤를 갈

8 『金溪志』 「人物」, 〈權昌業〉.

9 金燧, 『定巖齋遺稿』, 〈祭權子基昌業文〉.

10 『古文書集成 6 一義城金氏川上各派篇(Ⅱ)』,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338~339쪽, 〈李蘆·權泰時等通文〉(1675).

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봉가에서는 장흥효·이휘일李徽逸·이현일李玄逸·이재李裁·이상정李象靖 등 17~18세기 영남의 석학들과 사우문인관계를 지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혈연에 바탕한 '학문 공동체'를 통한 지식의 수용과 전파였다. 이것은 혈연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친연성이 컸고, 척연^{戚緣}에 따른 빈번한 왕래는 교유의 상시성^{常時性}을 높여 주었다.

그러면 학봉가에서는 어떤 씨족 집단과 척연을 맺었고, 그들 가운데 학문을 담론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어떤 집안을 들 수 있는가? 김성일 대에는 진주유씨(류종례^{柳宗禮})·남양홍씨(홍수약^{洪守約})·안동권씨(권태일^{權泰一})·풍산김씨(김영조^{金榮祖}: 학봉문인)·광주이씨(이사첨^{李士瞻}: 동고손자^{東阜孫子}), 이들 김집 형제 대에는 진성이씨(이순도^{李綸道}: 퇴계손자)·원주변씨(변경회^{邊慶會})·안동권씨(권행기^{權行可}: 권호문자^{權好文子})·고창오씨(오여벌^{吳汝穉}: 한강문인)·풍산김씨(김연조^{金延祖})·안동권씨(권상충^{權尙忠}: 충재증손)·광산김씨(김석중^{金錫重})·풍산김씨(김응조^{金應祖}: 서애·여헌문인)·이주신씨(신열도^{申悅道}: 여헌고제), 손자 김시추 형제 대에는 안동권씨(권래^{權來}: 충재손자^{冲齋孫子})·밀양박씨(박경길^{朴敬吉}: 송당현손^{松堂玄孫})·평해황씨(황천일^{黃千一})·부림홍씨(홍호^{洪鎬}: 우복문인)·풍산류씨(류원지^{柳元之}: 서애손자), 증손 김규 형제 대에는 안동권씨(권임^{權任})·부림홍씨(홍여하^{洪汝河}: 우복연원^{愚伏淵源})·홍양이씨(이태지^{李泰至}: 창석증손^{蒼石曾孫}) 등과 척연을 맺었다. 이는 박영^{朴英}·권벌^{權穉}·이황·권춘란^{權春蘭}·권호문·김대현^{金大賢}·홍호^{洪鎬}·이준^{李埈} 등을 현조로 하는 영남의 명기들과 혈연적 유대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사위 그룹인 권태일·김영조·오여벌·김연조·김응조·신열도·류원지·홍여하·이태지 계열은 학봉가에 있어 혈연적 '아종^{亞宗}'이자 '학문공동체'의 핵심 구성원들이었다.¹¹ 김응조가 김진의 '영산서원상현사상량문^{英山書院象賢祠上}

稾文'과 '학봉선생문집후지鶴峯先生文集後識'를 찬술하고,¹² 신열도가 '학봉예학鶴峯禮學'의 계승의식을 표명하고,¹³ 홍여하가 여러 편의 시문을 통해 학봉가의 충의론忠義論을 특서하고,¹⁴ 권태사가 김성일의 신후문자身後文字를 찬술하게¹⁵ 된 것도 세의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결과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봉가풍은 금계라는 공간, 그 공간을 출입하며 학술·문화적 궤적을 남겼던 사람들과의 유기성 속에서 파악할 때 실체에 보다 근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3. 학봉가풍鶴峯家風의 갈래와 계승의 토대

: 김집金湫의 계제階梯的 역할론

김성일에 의해 발아된 일가의 학문적 싹의 상전적相傳的 계승의 내용

11 대상을 18세기까지 확대하면 柳宜河(柳成龍曾孫)·權渠(柳元之外孫)·金純義·金位(李玄逸甥)·李碩寬(李象靖祖父)·權德秀·安鍊石·安復駿·柳夢瑞·都爾望·都萬甲·李世璣(李元禎孫子/李萬運曾祖)·柳敬時(柳復起玄孫)·羅學川·申命龜·鄭錫僑(鄭經世曾孫) 등도 학봉혈맥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김성일의 외손서 安景淹의 후손과 金是樞의 외증손서 羅學川은 노론으로 전향했다. 순흥안씨 安景淹 집안의 경우 金榮祖·張銀(張顯光孫子) 등과 통혼하며 남인 영남학파의 입장을 견지하다가 증손 安鍊石 대에 노론으로 전향했고, 그 아들 安復駿은 18세기 안동지역 노론의 수장으로 역할했다. 영조 연간인 1738년 金尙憲書院 건립의 주론자도 안복준이다.

12 金應祖, 『鶴沙集』 卷5, 〈鶴峯先生文集後識〉; 卷6 〈英山書院象賢祠上稾文〉.

13 申悅道, 『懶齋集』 卷6, 〈奉先祭儀圖式後識〉.

14 洪汝河, 『木齋集』 卷2, 〈觀鶴峯先生墓道立碑〉; 卷5, 〈記辛酉疏事〉; 卷6 〈題鶴峯先生筆蹟後〉.

15 韓國學中央研究院編, 『安東 金溪 義城金氏 鶴峯宗宅篇』(韓國簡札資料選集12), 2008, 250~251쪽, 〈鶴峯先生延證題名帖跋〉.

을 ‘학봉가학鶴峯家學·가풍家風’이라 할 때, 그러한 흐름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장자 김집金湊(1558~1631)이었다. 물론 김집은 학자로서 크게 두각을 드러낸 인물은 아니었다. 이는 류성룡柳成龍의 3자 류진柳軫이 서애가학의 착실한 수용을 넘어 ‘서애학西厓學’의 계승자로서 병산서원에 종향된 것과는 대비되지만¹⁶ 학봉가풍의 계승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현일이 ‘김집묘갈명金湊墓碣銘’을 지으면서 이 점을 놓치지 않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내가 보건대 예로부터 부조父祖에게 선덕善德과 공열功烈이 있는데 그것을 실추하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공은 이미 선대의 덕을 넉넉히 잘 이어받았으며 자손이 번성하여 복록이 가득하니, 어찌 소중래所從來가 없이 그리하겠는가? [...중략] 홍범洪範의 이치를 부연한 말은, 선친이 끼쳐 주신 가르침인데, 공이 실로 잘 이어받아서, 오복을 모두 갖추었다.¹⁷

장자를 향한 김성일의 기대는 매우 컸던 것 같다. 13세 소년을 굳이 도산陶山으로 데리고 가서 이황과의 학문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그런 기대감의 적극적 표현이었다.

13세에 가대부家大夫를 따라 퇴도退陶 노선생을 배알했다. 선생은 용모와 행동거지를 보시고는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가대부에게 ‘이 아이는 기량器量이 침중沈重하여 반드시 후덕군자厚德君子가 될 것이다’고 하고

16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家의 學風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유교문화』 55,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17 李玄逸, 『葛庵集』 卷24, 〈秉節校尉世子翊衛司洗馬金公墓碣銘〉.

는 손수 구용九容·사무사思母那·무자기母自欺 등의 어구를 정사淨寫하여 내려주셨다. 퇴계 문하에 머물면서 노선생의 둘째 손자 순도公純道公과 함께 『소학小學』을 수학하여 졸업卒業할 무렵 노선생께서 병석에 드시면서 문생門生을 사절謝絶하고 내보내셨다. 부군府君께서 물러난 지 7일 만에 선생先生께서 역책易箒하셨다고 한다.¹⁸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는 정식으로 퇴계문하에 입문했던 것이고, 심상한 칭찬이라 할지라도 이항의 격려와 기대는 그의 학자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했다. ‘애경당가장愛景堂家狀’에서 도산에서의 수학을 ‘대현大賢의 문하에 올라 학문의 요결要訣을 전수받고 지신持身·치심治心の 방법을 들었다’고 기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산에서 함께 『소학小學』을 수학했던 이순도李純道와 후일 사돈관계를 맺은 것은 학연에 바탕한 세의의 확장 과정이었다.

‘문충공가법文忠公家法’이라 불리는 김성일의 치가론治家論은 준엄함에 본질이 있었던 바, 김집은 엄부의 훈육 속에 가정지학家庭之學을 전수받았다.

문충공文忠公을 섬김에 아들로서의 직분을 다해 조금도 해이함이 없었으며, 좌우에서 시봉함에 항상 상의上衣를 입고 비록 무더운 여름이나 엄동에도 청시廳事 밖에서 대기했다. 앉으라는 명이 없으면 앉을 수 없었고, 쉬라는 명이 없으면 물러날 수 없었다. 문충공가법文忠公家法은 매우 준엄하여 자제에게도 인정함이 적었는데, 일찍이 막내아우 남악公南嶽公에게 ‘모아某兒는 근신謹愼하고 후중厚重하여 가성家聲을 실추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¹⁹

18 金滌, 『愛景堂遺稿』附錄, 〈家狀〉(曾孫以鈺撰).

한편 김집에게 있어 임진왜란은 미증유의 국난이자 참혹한 가화였다. 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성일은 순직하였지만 ‘실보오국失報誤國’의 명에는 학봉가가 풀어야 할 난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²⁰ 이런 곡절 속에서도 김집은 정훈(庭訓)을 착실히 계승하며 일가를 통솔했고, 1607년 정구가 안동부사로 부임하자 그를 사사하며 학문의 외연과 인적 교류망을 확대해 나갔다.

정구(鄭述)의 안동부사 부임은 퇴문고제로의 위상 강화, 한강학파(寒岡學派)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²¹ 9개월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안동·예안지역에 강력한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상당수의 문인을 규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임 초기만해도 안동사람들은 통독회(通讀會) 참여를 거부하는 등 정구에 대해 일정한 저항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²² 공교롭게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은 김성일의 생질 류부기(柳復起)였다. 물론 정구와 안동사람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곧바로 해소되었는데, 그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 김집이었다. 사실 정구는 부사로 부임하자마자 ‘치제(致祭) 및 문병예법(問病禮法)’을 통해 지역 사람과의 관계를 다졌는데, 김방경(金方慶)·권벌(權別)·조목(趙穆)·김성일 및 류성룡이 그 대상들이었다. 특히 김성일의 묘제문(墓祭文)에서는 ‘충의도리론(忠義道理論)’으로서 망자를 기렸는데, 이것은 ‘김학봉묘표(金鶴峯墓表)’와 함께 김성일의 공

19 金滌, 『愛景堂遺稿』附錄, 〈家狀〉.

20 김학수, 「조선후기 사람계의 김성일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한일관계사연구』 43, 한일관계사학회, 2012.

21 김학수, 『鄭述(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安東府使 재임』,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22 鄭述, 『寒岡集』續集 卷5, 〈播諭安東諸生文〉.

인적 면모를 자못 적실하게 표현한 글로 평가할 수 있다.

충의의 골수에다	忠義骨髓
도리의 심장이란	道理心腸
옛사람 그 말씀을	古人此言
공이 실로 감당할 만	公實承當 ²³

학봉가의 정구에 대한 인식의 호전, 김집^{金湊}의 한강문하 입문은 류복기와 정구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²⁴ 정구가 안동·예안에서 20여 명의 문인을 규합할 수 있었던 것도 김집 등 학봉가의 완충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김집의 한강문하 입문은 가학의 토대 위에서 학문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김성일의 현양론이 정구와 한강학파의 협찬 속에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1) 효우론^{孝友論} : 치가근본^{治家根本}의 강조

학봉가 교육 및 치가론의 요체는 ‘심학^{心學}’의 강조, ‘예법^{禮法}’의 확립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우애론^{友愛論}’과 ‘여성교육론^{女性教育論}’ 또한 여느 집안과는 차별되는 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김성일 자신은 과거를 통해 관

23 鄭述, 『寒岡集』 卷12, 〈祭金鶴峯墓文〉.

24 정구의 晩諭 및 권고를 통해 양측의 관계는 정상화 되었고, 柳復起의 아들 柳友潛이 정구의 주관하에 진행되던 永嘉志 校正 작업에 참여한 것도 관계 호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鄭述, 『寒岡集』 續集 卷5, 〈播諭安東諸生文〉); 김학수, 『鄭述(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安東府使 재임』,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료의 길을 택했음에도 자제 교육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심학(心學)이었다.

일찍이 자제들을 경계하기를, ‘사군자(士君子)는 마땅히 심학(心學)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과업(科業)을 본무로 삼게 되면 비록 한 이름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어두워진다. 이욕(利欲)의 꾀입에 빠지지 않기가 쉽지 않으니 가히 두렵지 않겠느냐?’²⁵

김성일은 우애(友愛)를 통한 가정의 화합을 치가(治家)의 근본으로 인식했고, 이를 위해 그는 재리(財利)에 대한 욕심을 철저히 경계했다. 각종 전기문(傳記文)에 가산(家産) 출연을 통해 형제·자매를 구조(救助)하는 기사가 곳곳에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産業)에 마음을 두지 않아 가산이 텅비자 판서공(金難)이 특별히 노비를 별급하였지만 선생은 굳게 사양하고 형제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주도록 했다. […중략] 큰 누이가 지아비를 잃고 몹시 애통해하다가 따라 죽었다. 이에 두 고아가 어려 외가에 의탁했는데, 선생이 교육하고 양육하기를 자기 자식처럼 했다. […중략] 중제 도인(道)이 일찍 부모를 여의어 기댈 곳이 없자 선생이 불쌍히 여겨 양육하여 자립할 수 있게 했고, 한 누이가 집이 가난하여 수고로움을 대신할 종이 없자 선생이 자신의 계집종 3구를 증여했다. 열숙(孺叔) 기석(奇石)이 곤궁하여 생존할 수 없자 또 계집종 2구를 증여한 탓에 분급받은 노비 가운데 남은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²⁶

25 金涌, 『雲川集』卷5, 〈叔父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鶴峯先生言行錄〉, “嘗戒子弟曰士君子當以心學爲先 若徒以科業爲務 則雖得一名 其心已蔽 鮮不爲利欲所誘 可不懼哉.”

26 金涌, 『雲川集』卷5, 〈叔父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鶴峯先生言行錄〉, “家至屢空 判

친형제는 물론 생질甥姪·종제從弟·열숙孽叔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김성일의 ‘베품의 우애론’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종족 및 혈연의식의 강화 과정이자 인간애의 천연스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 생질 류복기柳復起의 증언은 김성일 우애론의 실상을 가늠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복기復起 형제는 10세 전에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 의탁하여 자랐다. 구씨舅氏(金誠一)께서 우리를 무육撫育함에 은애恩愛를 극진히 하여 음식과 의복 그리고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의 아들처럼 했다. 우리들은 이미 무실(水谷)에 정거했으나 모든 것이 처음이라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었으므로 구씨舅氏께서 더욱 불쌍히 여기고 구휼하는 마음을 더하시었다. 납실(獐谷)을 왕래하실 때면 비록 날이 저물고 경황이 없더라도 반드시 우리집에 들르시어 먼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는 제사의 의절과 농사의 상황, 노비를 엄직하는 일들을 물으시고는 모든 일을 토박 토박 가르쳐주셨다. 또 율신律身하고 근학勤學하라는 뜻으로 힘써 훈계하셨는데, 우리 형제가 ‘어로魚魯’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식견을 갖고, 전업田業을 보존하여 지키게 된 것은 모두 구씨의 도움이다.²⁷

김성일의 우애론은 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 행위로 표출됨으로써 그것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컸다. 그의 우애론이 자식들에게 흡인되어 자신의 당대에 이미 가풍으로서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런 조짐은 1586년 장남 김집金湑이 29세 되던 해에 나타났다. 이 해 8월 김성일이 장남 김집에게 노비 2구를 별급하려하자 김집이 자신

書公特給臧獲 先生固辭 而推諸兄弟之貧者.”

27 柳復起, 『岐峰逸稿』卷1, 〈鶴峯先生行蹟〉.

보다 형편이 못한 형제들에게²⁸ 나눠주기를 청하며 극구 사양한 일이 있었다. 김진·김성일 부자의 ‘양재미담讓財美談’이 김성일·김집 부자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된 것이다. 당시 김집은 나주목사 임기 후반을 보내고 있던 아버지를 시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보상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사양함으로써 김진 ⇒ 김성일로 이어지는 ‘사수辭受’의 가풍을 실천했던 것이다.

병술년(1586) 8월 13일 여중 둘을 큰아들에게 별급해 주고자 하였는데, 아이가 형제 가운데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기를 청하며 고사하였다. 취중辭中에 붓을 찾아 이를 적어둔다.²⁹

위 인용문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처럼 김성일은 김집의 장자다운 면모에 혼쾌했고, 우애의 가풍적家風的 정착의 가능성에 감동했다. 이에 그는 즉석에서 장편의 시를 지어 그 소회를 피력했는데, ‘여장아집與長兒濼’이란 작품이 그것이다.

문호의 흥망은	門戶之興替
자손의 어질고 어질이 앓음에 달려있네	子孫賢不賢
네가 한 착한 말 한마디 들으니	聞汝一言善
감격하여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구나.	感淚自漣漣

²⁸ 김성일은 1555년(명종 10) 權德鳳의 딸 안동권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3남(濼·湏·滋), 3녀(洪守約·權泰一·金榮祖의 처)를 두었다. 이들 외에 측실 소생으로도 4남 2녀가 있다.

²⁹ 韓國學中央研究院編, 『安東 金溪 義城金氏 鶴峯宗宅篇』(韓國簡札資料選集12), 2008, 162쪽; 〈與長兒濼〉, “丙戌八月十三日 以兩婢別給長兒 兒請分與兄弟之貧者 固辭 醉中 索筆書此.”

[중략]

저마다 일가를 이루게 되어서는	及其分門籍
처자식만 눈앞에 가득하여	妻兒滿眼前
남의 것과 내 것을 서로 구별하여	物我便相形
한 집안 내에서도 창검을 찾게 되네	牆內尋戈鋌

[중략]

저들을 어찌 입에 담겠는가?	彼哉何足道
조상이 세워놓은 가훈에	家訓在祖先
우리 가문은 본시 소박했고	吾門本寒素
세세토록 벼슬자리만 겨우 지켜 왔도다.	世世守青氈
양대에 계약문서 하나 없으니	兩代無契券
음보명 형제처럼 밭을 다투겠는가?	疇爭善明田
항상 내 불초한 모습 부끄러워하였는데	常愧我不肖
가문의 명성을 네가 또 전하겠구나.	家聲汝又傳

[중략]

요순도 비록 큰 성인이나	堯舜雖大聖
효제하면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고	孝悌可至海
맹자께서 사단을 밝혀 놓았으니	鄒孟軻四端
확충하면 샘물이 팔팔 솟아오르는 듯 하리라.	擴充如達泉
네가 성인의 훈계를 체득하려면	汝如體聖訓
청컨대 마음의 저울을 헤아려 보거라. ³⁰	請度心之權

재물 앞에서는 형제간에도 창검을 겨누는 세태에서 김집의 행위는 분명 기념할만했다. 무엇보다 김성일은 김집의 심량(心量) 속에서 가법 계승의 가능성을 감지했기 때문에 ‘취중색필(醉中索筆)’을 마다치 않을만큼

30 韓國學中央研究院編, 『安東 金溪 義城金氏 鶴峯宗宅篇』(韓國簡札資料選集12), 2008, 159~162쪽, 〈與長兒濼〉.

기빠했던 것이다. 김성일의 글은 현재에 대한 격려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당부로 이어진다. 그 당부는 효제의 실천과 인의예지의 확충을 통한 요순堯舜과 맹자의 경지로의 이름이었고, 그것을 위해 ‘심권心權’, 즉 마음의 저울을 헤아려 볼 것을 당부했다. 모든 것이 ‘마음공부’ 내지는 ‘마음다스림’으로 귀결되고 있는 바, 김성일이 말한 ‘심권’의 단련의 도구가 그가 가학·가풍의 요체로 강조했던 ‘심학心學’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 예법론禮法論 : 예법지가禮法之家의 확립

학봉가 가정교육의 근간은 엄애嚴愛의 병행에 있었다. 이런 정신은 자녀를 은혜로써 기르고 ‘의리義理’(義方)로써 가르쳤다는 기록에서³¹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남녀유별을 엄격히 하면서도 여성을 중요한 교육의 대상으로 여겼고, 심지어 노비들도 교화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예법가禮法家’의 확립이었다.³²

31 金涌, 『雲川集』卷5, 〈叔父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鶴峯先生言行錄〉, “治家有法 撫子女以恩而教以義方 御婢僕以寬而飭以勤恪.”

32 김성일의 예학 전반에 대해서는 金彥鍾, 「鶴峯先生の禮學」(『鶴峯의 학문과 구국활동』, 학봉김선생기념사업회, 1993)에 방대한 분량으로 매우 정미하게 분석되어 있다. 이외 예학 관련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가 있다. 이현진,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예학(禮學)과 『상례고증(喪禮考證)』」, 『민족문화논총』4, 신구문화사, 2008; 김정신, 「鶴峯 金誠一의 學問論과 居鄉觀 — 「童子禮」·「居鄉雜儀」의 간행과 유포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29, 태동고전연구소, 2012.

남녀간에 구별이 있어 집안이 정숙하였다. 매년 정초(正初)와 동지(冬至), 초하루와 보름 및 집안 어른의 생신날에는 자제들을 당 위에 모아 남자들은 왼쪽에 자리하는데 서쪽이 뒷자리가 되며, 부인들은 오른쪽에 자리하는데 동쪽이 뒷자리가 되어 순서대로 서서 어른을 배알하게 하였는데, 장부(丈夫)는 재배하고, 부인(婦人)은 사배했다. 노비들은 정초에만 차례대로 서서 절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온 집안사람들이 모두 어른을 섬기고 음양(陰陽)하는 예를 알게 되었다.³³

예법의 실천의 있어 여성의 존재감과 역할이 크게 강조된 것은 김성일의 여성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김집이 지은 ‘선비실록(先妣實錄)’에 따르면, 김성일은 혼인 이후 40년 동안 부인 안동권씨를 ‘소심경외(小心敬畏)’하며 예(禮)로써 대했고, 아무리 자잘한 일이라도 반드시 상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집안의 질서와 법도가 반듯했다고 한다.³⁴ 김성일과 안동권씨 사이의 부부상경(夫婦相敬)의 예법(禮法)은 1592년 12월 24일 김성일이 산음(山陰)에서 안동 납실의 본가(右監司宅)로 보낸 한글편지에서 잘 나타나 있다.³⁵

33 金涌, 『雲川集』卷5, 〈叔父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鶴峯先生言行錄〉, “男女有別 門庭斬斬 每正至朔望及家長上壽之日 令子弟聚會堂上 丈夫處左西上 婦人處右東上 序立參謁 丈夫再拜 婦人四拜 奴婢則惟於正朝 序立羅拜 由是一家之人 稍知事長揖遜之禮.”

34 金滌, 『愛景堂遺稿』(先妣貞夫人權氏實錄), “先考四十年小心敬畏 一遵禮教 雖在尋常細事 咸欲中度 必曰得無不可於義否 莫不稟知而後行 以故 門內之治 雍然肅然 井井不紊 無少違德.”

35 韓國學中央研究院編, 『安東 金溪 義城金氏 鶴峯宗宅篇』(韓國簡札資料選集12), 2008, 172쪽, 〈鶴峯諺簡〉. 이 편지는 새해 문안을 위해 보낸 것이지만 사실상 永訣의 의미를 담고 있다. 安信의 형식이지만 존칭의 어법에서부터 부인에 대한 존중의 뜻이 잘 드러나 있다. 戰場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속마음을 표현한 것에서는 부인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의식이 감지되기도 한다. ‘당모(丈母)를 표기할 때는 대두하여 존중의 의미를 표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김성일에 의해 가닥을 잡은 학봉가의 가정교육은 김집을 통해 확대·심화되었다. 정초와 동지, 초하루와 보름에 자제를 이끌고 가묘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고 대부인을 알현하는 것은 기존 예법의 준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김집은 위 두 예를 마치면 자손들을 청사廳事로 모아 예교를 시행하였는데, 이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부인 진주류씨晉州柳氏(柳宗禮의 딸)와의 상읍례相揖禮였다.³⁶ 학봉가의 여성존중의식은 이런 양성의 과정을 거쳐 정착되어 갔다.

이런 맥락에서 자손 교육은 남녀에 구분을 두지 않되 특성화 된 교육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남녀 자손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같았지만 남자는 『효경孝經』·『잡의雜儀』 등의 서적, 부인은 『열녀전列女傳』 등을 교재로 성별로 교육의 내용을 세분화 한 것이³⁷ 김성일 대에 비해 진보된 것이었다. 『열녀전』 등 부인용 교재는 자신이 직접 언문諺文으로 번역한 것을 교재로 활용했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반드시 김집 앞으로 나아가 주어진 교재를 강독하게 했다는 것에서 그의 교육적 열성을 족히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효제충신孝弟忠信의 원칙에 충실한 교육과 치가治家였고, 그것은 김성일의 치가방침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것이었다.³⁸ 또한 그는 ‘예법禮法’으로써 가정을 경영했고, 제사에 더욱 각별함을 보여 김성일이 제정한 ‘봉선제규奉先諸規’를

36 金滌, 『愛景堂遺稿』附錄, 〈愛景堂家狀(玄孫以鐸撰)〉, “退就廳事 與宣仁相向揖.”

37 金滌, 위의 책, 같은 곳, “男子則執孝經內則司馬公雜儀等書 婦人則執公素所錄諺列女傳內則篇 以次詣府君前進讀 以孝弟忠信儀刑子孫.”

38 부녀 교육의 전통은 일문의 보편성으로 정착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애착을 보인 인물로는 金滌의 7세손 金龍燦 등을 들 수 있다. 김용찬은 학문이 뛰어나고 예학에 밝아 1751년 안동부사 尹光紹가 주관한 鄉飲酒禮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景泗流芳』(景泗流芳編纂委員會, 1974), 〈金龍燦〉).

제례의 준칙으로 적용하게 된다. 학봉가의 예적禮教的 치가론治家論은 이른바 호례가好禮家에서 본을 받을만큼 사회적 확산력을 지녔고,³⁹ 김집의 예학적 식견은 17세기 영남의 대표적 예학자禮學者 정구鄭述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⁴⁰

예법지가禮法之家의 확립을 위한 김집의 노력상은 결코 학봉가의 ‘자작입론自作立論’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인정의 영역 속에 있었고, 그와 교유했던 사우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에서 한결같이 이 점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자 했다. 예컨대, 김승조金崇祖·이준李峻은 ‘학봉의 가르침을 입어 예법禮法으로 제가齊家한 사람’,⁴¹ 이래李峽는 ‘예법기禮法家의 전통으로 영남의 문명文明을 밝힌 사람’으로 기억했고,⁴² 류진柳珍·류원지柳元之 숙질 또한 ‘선훈先訓을 착실히 계승하여 예법禮法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 평가하는데⁴³ 주저하지 않았다. 비록 애도문자哀悼文字의 표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평가는 실사實事에 바탕한 실록實錄이었다. 이후 학봉가를 관통하는 예법전통禮法傳統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접목되어 더욱 강고하게 착근되어 갔다. 김성일의 6세손 김태렴金泰濂이 『가례집유家禮輯遺』를 편찬하고⁴⁴, 11세손 김흥락金興洛이 『가제의家祭儀』

39 金滌, 『愛景堂遺稿』附錄, 〈愛景堂家狀(玄孫以鐸撰)〉, “府君於子孫之冠…一從儀禮爲之 鄉里好禮之家 效之 自是惟吾鄉盛行焉.”

40 金滌, 위의 책 附錄 같은 곳, “(寮岡)先生曰三代遺風得復見今日 若非金公講禮之素奚能臻此哉 公家禮學淵源所自儘不誣也.”

41 金滌, 위의 책 附錄, 〈輓詞(金崇祖)〉, “死生盡孝能無憾 禮法齊家蓋有傳.”; 〈輓詞(李峻)〉, “常看禮法承名父 尙恨林園滯此翁.”

42 金滌, 위의 책 附錄, 〈輓詞(李峽)〉, “南國文明地 稱公禮法家 過庭曾服訓 就道更無差.”

43 金滌, 위의 책 附錄, 〈輓詞(柳珍)〉, “大賢遺澤世宗之 家法南州絕等夷 詩禮儘從先訓得 冠婚能做古人爲.”; 〈輓詞(柳元之)〉, “禮法元承訓 規模儘自公.”

44 李象靖, 『大山集』卷43, 〈家禮輯遺序〉.

를 저술하여⁴⁵ 일가의 예법禮法을 정비·심화시킨 것은 예가전통禮家傳統의 계승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3) 의리론義理論 : 학봉충의鶴峯忠義의 세습

치가治家와 경국經國에 있어 의義의 적용과 실천에 철저했던 김성일의 학자·관료관, 특히 통신사행에서 드러난 의리정신義理精神과 충의론忠毅論에 바탕한 임란 순국은 김집金湑의 의리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의 의리정신은 살신殺身의 치열함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선비적 의리의 실천에는 소홀함이 없었다. 1596년 9월 28일 고종형 류복기와 함께 ‘공산회맹公山會盟’에 참여한 것은⁴⁶ 그런 의식의 단적인 표출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집은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조租 70석石을 희사하여 근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음식飲食·기거起居를 극도로 절제함으로써⁴⁷ 자기 방식의 ‘신의臣義’를 행했다.

한편 김집은 난진이퇴難進易退를 고수함으로써 경세經世에 적극적이었던 김성일의 출처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김집에게 난진이퇴는 ‘수분守分’의 과정이자 표현이었다. 1605년 안동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부사 김득金功을 도와 치수治水를 완수한 식견에서는 경세經世의 자질이

45 金興洛, 『西山集』卷14,, 〈家祭儀〉.

46 金見龍, 『水月齋日記』, 〈丙申9月28日〉. 同盟한 안동 인사로는 柳復起·柳知潛 부자, 류성룡의 아들 柳樛·柳軫 형제가 있고, 서애고제 鄭經世, 퇴계문인 曹好益의 이름도 보인다. 회맹시 김집은 朴毅長·李宜潛·曹好益·鄭經世·柳復起 등 약 30명의 사우들과 자신의 字를 넣은 聯句를 지었는데, 그가 지은 구는 ‘混泉連活源’이었다.

47 金湑, 『愛景堂遺稿』附錄, 〈愛景堂家狀(玄孫以鐸撰)〉, “丁卯毛魯犯西都 鄉士謀舉義旅 府君以租七十石助軍興之費.”

감지되었지만 수분에 바탕한 ‘사수辭受’의 의리를 견지해나갔다. 그런 의식은 1595년(선조 28) 김성일의 광국공신光國功臣 녹훈에 따른 관직의 사양과 1607년 세마洗馬 임명 시 사은謝恩 후 즉시 환기한 것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덕형李德洞·이항복李恒福·이호민李好敏 등이 군신의 분의分義를 내세우며 출사를 중용하였지만 ‘양로농포養老農圃’의 논리로써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⁴⁸ 그에게 ‘산림재상山林宰相’의 예칭이 붙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리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김성일의 계승 양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1621년의 ‘청참이이첨소請斬李爾瞻疏’였다. 이것은 감언敢言·직언直言의 모험성冒險性으로 규정할 수 있고, 1562년 희릉친장禧陵遷葬 반대론, 1571년 노릉魯陵 복위復位 및 사육신死六臣 복작론復爵論, 1591년 최영경崔永慶 신원론을 펼쳤던 김성일의 감언적敢言的 궤적⁴⁹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최영경 신원론은 청론淸論의 회복으로 평가될만큼 재조在朝 의리론義理論의 정점을 찍었다.

간신 정철鄭澈이 기축역옥己丑逆獄으로 인하여 처사處士 최영경崔永慶을 터무니없는 죄로 얹어 죽이니, 사람들은 모두 최영경崔永慶의 원통함을 알고 있었으나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김성일金誠一이 어전에서 항언抗言으로 변명하여 설원과 복관이 되게 하였으니, 청론淸論의 한 맥이 이를 힘입어 이어졌다.⁵⁰

48 金滌, 『愛景堂遺稿』附錄, 〈愛景堂家狀(玄孫以鏗撰)〉, “摺紳諸老如漢陰李公白沙李公五峯李公交移書責之以君臣分義展施抱負之義 府君以古人養老農圃說答之.”

49 김학수, 『조선 후기 사림계의 김성일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한일관계사연구』 43, 한일관계사학회, 2012.12.

50 『선조실록』 권60, 선조 28년 2월 6일(기유).

후술하겠지만, ‘청참리이침소請斬李爾瞻疏’의 소두는 아들 김시추金是樞(1580~1640)였지만, 아들로 하여금 소두의 책임을 자임하게 한 동력은 김집의 격려에서 나왔고, 김집의 격려는 곧 ‘선지先志’에서 발단했다는 점에서 이 상소는 학봉가 의리론의 계승 및 발양의 행보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4) 문헌론文獻論 : 가학문지家學文字의 정비

학봉가풍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헌의 정비이다. 여기서의 문헌은 김성일의 학자·관료적 궤적의 문자적 실체인 문집文集의 편찬과 행장·비문 등 전기傳記·표덕문자表德文字의 찬술이었다. 『학봉집鶴峯集』의 경우 최현崔峴·김용金涌·신달도申達道 등 학봉문인들의 도움을 받아 1614년 경에는 편집 및 교정 단계를 거칠만큼 진척을 보았다.⁵¹ 조선시대 문집의 경우 저자의 시문인 본록本錄과 전기傳記·제문·만사·축문 등의 부록附錄으로 구성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문집 간행을 위해서는 행장·비문 전기문의 찬술이 시급했다. 이에 김집은 『학봉집鶴峯集』의 교정 직후인 1614년 3월 최현崔峴과 함께 정구를 찾아 ‘학봉행장鶴峯行狀’의 찬술을 청하게 된다.⁵² 정구는 김성일·김집 부자와의 교계에 바탕하여 찬술을 허락하였는데, 이 때 저본으로 제공된 것이 김집의 ‘선

51 崔峴, 『訶齋集』 「年譜」, 〈甲寅〉(1614), “正月 留在金溪 校讐鶴峯先生遺集”; 申達道, 『晚悟集』 「年譜」, 〈甲寅〉(1614) “先生三十九歲 正月校正鶴峯先生文集 崔訶齋留金溪 與金洗馬澯書請焉.”

52 崔峴, 『訶齋集』 「年譜」, 〈甲寅〉(1614) “三月 與金洗馬澯共往泗水 拜寒岡先生 請撰鶴峯先生行狀.”

고사적先考事蹟'과 김용·최현이 각기 찬술한 '학봉언행록鶴峯言行錄'이었다.

이후 김집은 여러 차례 사양정사泗陽精舍를 왕래하였는데, 이는 행장 찬술의 독려와 한려학인寒旅學人과의 학문적 교류라는 두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사양정사에서 주서朱書를 강론한 기록인데, 장현광張顯光·손처눌孫處訥·이천봉李天封 등은 한려학파寒旅學派를 대표하는 학자들이었고, 진주 출신의 이정李滯은 남명문인이었다.⁵³ 이점에서 사양정사 왕래는 다양한 학적 계통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학문적인 성장을 배가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상泗上으로 갔다. 선생의 증세가 점차 차도가 있어 보였다. 장덕화張德晦(張顯光)가 온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이여무李汝懋(李厚慶)·곽치정郭稚靜(郭尅)·김활원金活源(金濼)·이여함李汝涵(滯)·이숙말李叔發(李天封)이 모두 와 있었다. 서로 함께 주서朱書를 7일 동안 강론하고 돌아왔다.⁵⁴

행장 찬술은 정구의 신병으로 인해 몇 해를 끌며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학봉행장鶴峯行狀'이라는 문자적 비중에서 오는 부담감이 찬술을 더욱 지연시킨 측면도 있었다.

1616년 7월 정구의 영주 애전욕행艾田浴行 때 직접 방문하여 문안한 것도 문자 독촉의 의미로 읽히지만⁵⁵ 청탁 이후 3년을 기다린 김집은

53 李滯은 임란 이후 德川書院의 중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남명학파에서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河愷, 『滄洲集』卷1, 〈德川書院重建記〉).

54 孫處訥, 『慕堂集』「年譜」, 〈乙卯〉(1615).

55 金光繼, 『梅園日記』, 〈丙辰7月19日〉, “朝洪勳用甫及有司柳仁弘來見 食後發行 日午到艾田拜先生 李籟·李天封·李壘·李叔發·發子李綸陪先生而來者也 任參奉·金洗馬·鄭迪亦來侍矣 夜宿于此.”

1617년 9월 장흥효와 함께 ‘학봉행장鶴峯行狀’의 찬술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구의 만년 강학처인 칠곡의 사양정사泗陽精舍를 찾았다. 김집·장흥효는 9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사양정사泗陽精舍에서 유숙하며 행장의 탈고를 기다렸다. 정구는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25일만에 총 35,754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초본草本을 완성했는데,⁵⁶ 이 과정에서 이윤우李潤雨 등 한강문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⁵⁷

사양정사에서의 38일은 결코 무료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다. 김집·장흥효는 수시로 정구와 질문·토론하는 학술의 시간을 가졌는데, 주자학朱子學과 양명학陽明學이 각립하게 된 까닭, 『심경발휘心經發揮』의 열람 및 논평 등 다양한 학술 문답이 이루어졌다.⁵⁸ 특히 김집은 평소 관심이 많고 조예 또한 깊었던 예학禮學(祭禮)과 관련하여 최현·이윤우·장흥효 등과 토론하는 한편 미심쩍은 부분은 정구에게 품질稟質하면서 예학적 소양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⁵⁹ 뿐만 아니라 그는 가끔 사양정사와 대구를 왕래하며 손처눌孫處訥에게 예학을 질문하고 주서朱書를 강론하는 등 학문 활동의 외연을 크게 확대했다.⁶⁰ 이런 과정은 김집의 한강학파寒岡學派 편입을 보다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었고,⁶¹ 마침내 정구의 문인록

56 정구는 병환이나 應接 등의 일이 발생하면 며칠씩 집필을 멈추기도 했다(張興孝, 『敬堂集』卷1, 〈南行錄〉, “六日丁酉霧 近日先生以病患應接之故 停筆累日矣”).

57 張興孝, 『敬堂集』卷1, 〈南行錄〉, “二十七日己丑晴 旁近士友 於行狀事 無不盡心 非先生之德有以感人之深 何能如此.”

58 張興孝, 『敬堂集』卷1, 〈南行錄〉.

59 張興孝, 위의 책, 같은 곳.

60 孫處訥, 『慕堂集』「年譜」, 〈丁巳〉(1617), “金洗馬活源自泗上來訪 日記 活源多問變禮 又論朱書 余曰朱書問答之間 要看發病施藥處云.”

61 김집은 전후 약 2개월(1617.09.07.~11.02)에 걸친 여정에서 盧景任·李潤雨·李濯·李蓀·金中淸 등 寒旅門下의 고제들과 교류하며 인적연계망의 폭을 넓혔다. 특히 張顯光

인 『회연금문록檜淵及門錄』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⁶²

당시 정구의 학자적 위상, 정구와 김성일의 관계성 및 상호 인지성 등을 고려할 때⁶³ ‘학봉행장’은 노작(勞作)이자 신필(信筆)에 손색이 없을 것 같다. ‘학봉행장’ 초본을 건네받은 김집은 회로에 해평(海平) 최현(崔暉)의 집에서 장흥효·김운안·최현과 함께 교정작업을 진행했고,⁶⁴ 10월 21일 장현광(張顯光)을 만난 다음 금계로 돌아왔다. 장현광의 거처 인동(仁洞) 남산(南山) 모원당(慕遠堂)에서의 회동 시에는 한강고제(한강고제 이윤우(李潤雨), 월천고제 김중청(金中淸)과 동숙(同宿)·동화(同話)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는데,⁶⁵ 장현광이 김집

의 경우는 하행시인 9월 12일과 상행시인 10월 21일 두 차례 방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현광은 김집의 학식과 인품을 인정하여 ‘畏友’로 대했다고 한다(金滌, 『愛景堂遺稿』附錄, 〈家狀〉, “以鏗 弱冠拜張副學公 卽旅軒先生胤也 陳吾家世德曰 洗馬公吾先子之畏友也.”).

62 이와 관련하여 『愛景堂家狀』의 기술은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이에 따르면, 김집이 泗陽精舍에서 정식으로 弟子의 예를 갖추려하자 정구는 극구 사양하고 ‘師弟’가 아닌 ‘賓主’의 예로 대했으며, 문인들에게 김집을 ‘鶴峯의 典刑을 간직한 자신의 老友’로 소개할 만큼 존중했다고 한다. 이들 김시추가 『寮岡集』 편찬을 위해 정구의 서간을 수집·정리에 일조한 것도 연원의식과 관련이 깊다(金垓, 『溪巖日錄』, 〈辛酉閏月26日〉, “食後小齋起行 德輿以志以直及塔皆聯轡至安東 聞孝一仁甫子瞻(金是樞·筆者註)宜彥及諸士友會于校舍 以襄集寮岡之札也.”).

63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정구의 ‘鶴峯行狀’을 朋友實善의 보답으로 해석한 바 있다. 1567년 김성일·정구가 陶山書堂에서 함께 독서할 때 성주 사람들이 이황에게 喪祭禮問目을 보내오자 정구가 이황에게 품의하지 않고 答詞를 작성한 일이 있었다. 이를 목격한 김성일이 정구의 환가시에 편지를 보내 ‘답사사간을 질책하자 정구는 이를 수용하여 크게 뉘우쳤다고 한다. 이는 도산서당에서 일어난 朋友實善의 상징적 사례로써 김성일·정구 사이의 각별한 정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실을 증언한 사람은 趙穆이고, 이것을 기록화 한 사람은 그 제자인 金中淸이다(김학수, 『鄭述(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安東府使 재임』,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64 金允安, 『東籬集』附錄, 「年譜」, 〈丁巳〉(1617), “九月與張敬堂與孝金洗馬滌崔齋校正鶴峯先生行狀 張金二公將請受行狀于寮岡先生 來留海平 共校原狀 因與敬堂初齋共論說理氣分別.”

65 金中淸, 『荀全集』附錄, 「年譜」, 〈丁巳〉(1617), “十月往拜泗水 歷訪張旅軒 與金洗馬滌

을 ‘외우畏友’로 칭한 것도 이런 회합을 통한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봉행장’에 대한 정구의 애착은 특별했다. 초본 탈고 이후 신병 속에서도 수정 및 보완작업에 노년의 정력을 쏟았고, 간혹 김집金湑이 완성完定을 재촉하면 질책도 서슴지 않았다. 김성일에 대한 공사公私 양면의 인간적 신뢰와 애착이 이런 집착으로 표현된 것이다.

- ① 선부군先父君의 행장에 대해 당신께서는 이미 원본의 수준이 되었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아직도 다듬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늘 그대는 단지 초본만 완성되면 그것으로 족한데 매번 반드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의 얕은 견해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⁶⁶
- ② 김세마金洗馬(金湑)가 또 지금 멀리 찾아왔는데, 내가 기초한 행장行狀이 아직도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 신병으로 문필을 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자연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한편 또 당초에 나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선불리 붓을 들었던 것이 한스럽습니다.⁶⁷

이런 과정을 거쳐 ‘학봉행장’은 1618~19년 경에 완성完定되었지만 ‘문자정비文字整備’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집은 정구에게 다시 묘표를 청했고, 정구는 김성일의 생평을 99자字에 집약시킨 ‘김학봉묘표金鶴峯墓表’⁶⁸

張敬堂興孝李石潭潤兩同宿。”

66 鄭述, 『寒岡集』卷5, 〈答金活源別紙〉, “先尊府行狀 左右則謂之已就完本 而鄙意則尙多有修改之處 … 每副尊意 則只一成草本 足矣 何必每加修正 與僕之淺見甚不同.”

67 鄭述, 『寒岡集』續集 卷8, 〈與權遵甫山立〉.

68 鄭述, 『寒岡集』卷13, 〈金鶴峯墓表〉. 이 글의 대의는 忠·直·學·德 네 글자로 요약할

를 찬술했다. 이 글은 1619년 이준李垵이 지은 ‘제학봉기실석좌題鶴峯紀實石左’와 함께 김성일의 묘소 앞 북처럼 생긴 바위에 새겨졌다. 결국 정구는 김성일 전기의 핵심을 이루는 ‘학봉행장鶴峯行狀’과 ‘학봉묘표鶴峯墓表’를 찬술했던 것이고, 이 두 편의 글은 후세 사람들이 김성일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정경세의 ‘학봉신도비명鶴峯神道碑銘’, 조경의 ‘학봉선생집서鶴峯先生集序’,⁶⁹ 김응조의 ‘학봉선생문집후지鶴峯先生文集後識’⁷⁰ 등의 현양문자도 사실상 여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세마洗馬 김집金湑이 한강寒岡이 찬한 행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면서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되어 무덤 가의 나무가 이미 굵어졌음에도 아직 묘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 못난 제가 항상 두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행적을 서술한 글이 한강寒岡 선생의 손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께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비명碑銘을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였다.⁷¹

김집이 당대 영남의 석학 정구鄭述·정경세鄭經世에게서 선인先人の 전기문을 받고자 했던 것은 사림사회가 인정하는 ‘일가一家의 문자文字’를 남기기 위함이었으며,⁷² 동시에 이것은 양질의 ‘가풍전승家風傳承’의 토대

수 있다. 글자수는 제목인 ‘題金鶴峯墓表’와 연조 및 찬자를 기명한 ‘萬曆己未夏寒岡鄭述題’를 제외한 본문의 글자를 말한다.

69 趙綱, 『龍洲遺稿』卷11, 〈鶴峯先生集序〉.

70 金應祖, 『鶴沙集』卷5, 〈鶴峯先生文集後識〉.

71 鄭經世, 『愚伏集』卷17, 〈有明朝鮮國贈嘉義大夫吏曹參判行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金公神道碑銘并序〉.

72 정경세가 지은 ‘鶴峯神道碑銘’의 경우 무려 세 번이나 개찬했다고 하여 ‘三改碑’라

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학봉가풍의 수성守成이라는 측면에서 김집의 역할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⁷³

4. 17세기 학봉가풍鶴峯家風의 계승 양상

: 의리론義理論과 근왕론勤王論을 중심으로

1) ‘칭참이이침소請斬李爾瞻疏’: 의리의식義理意識의 사회적 결핵

학봉가의 의리론을 상징하는 기물은 검劔이다.⁷⁴ 일찍이 김성일은 자손들에게 검을 분증分贈하며 선비적 의리관을 엄칙한 바 있는데, 여기서의 검은 곧 학봉가 의리정신의 통관적 매개이자 강력한 상징이었다.⁷⁵

불린다. 실제 김집은 崔現 등과 상의하여 신도비명의 일부 문구의 수정 및 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정경세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崔現, 『劔齋集』卷9, 〈與金洗馬活源別紙〉). 정경세가 ‘鶴峯神道碑銘’을 개찬한 흔적은 장서각에 소장된 〈文莊公手澤〉·〈鶴峯先生碑銘〉·〈鶴峯碑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3 학봉가풍의 계제로서의 김집의 역할과 위상은 사우들의 輓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金滌, 『愛景堂遺稿』附錄〈輓詞(張顯光)〉, “鶴峯親炙退陶翁 德義餘風承在公.”; 〈輓詞(李敏求)〉, “駐節高門記昔年 鶴峯文彩見依然.”)

74 김성일에 있어 劔의 의미에 대해서는 宋載邵, 『鶴峯의 義理精神과 紀行詩에 나타난 劔의 이미지』(『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학봉김선생기념사업회, 1993)에 정미하게 분석되어 있다. 김성일의 정신세계를 가장 적확하게 포착하여 그려낸 논고로서 본고의 작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75 김으로 상징되는 의리정신은 조식에 의해 영남 학계에 깊이 각인된 바 있고, 김성일을 통해 환기된 측면이 있다. 이런 면모는 김성일보다 약 한 세대 후배적인 장현광에게서도 일정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장현광은 조식이 惺惺子와 경의검을 수양의 도구로 삼은 것에 비판적이었다. 여기에는, 修德은 사우간의 切磋琢磨를 통해 얻어야 하므로 굳이 外物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장현광 또한 만년에는 검을 소지하게 되었고, 거기에 명을 새겨 노년의 보필로 삼은 바 있다(張顯光, 『旅軒集』卷10, 〈二鐵銘〉). 특히 검을 노래한 詠劔은 조식의 ‘書劔柄贈曹壯元璣’의 기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의羲’와 ‘리례’의 가림이라는 난제難題가 검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일가의 정신 영역 속으로 무섭게 파고드는 장면이다.

어느 날 검을 나누어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은 내가 검을 나누어 주는 뜻을 알겠느냐? 마땅히 이 검으로 의羲와 리례의 연결 부분을 절단하여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⁷⁶

사실 수신의 요체로서 검에 대한 애착과 강조는 김성일의 창출적 인식은 아니었다. 그것은 의성김씨 청계가문의 가풍적 보편성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아래는 김용金涌의 『운천연보雲川年譜』에 실린 청계가문 보검寶劍의 전수 경위이다.

『논어論語』 7권을 배송背誦하여 한 자도 착오가 없자 조부 청계공靑溪公(金龜)이 보검 한 자루를 내렸고, 더하여 수전水田을 지급하여 기쁨을 표현했다. 검은 의성군義城君(金龍庇) 때부터 세전되던 보물인데, 창포검菴蒲劍으로 일컬어졌다. 선생 뒤에는 제3자 경재공敬齋公 시정是楨에게 다시 전했고, 경재공敬齋公은 아들 경와공敬窩公 휴려休烈에게 전수하였는데, 이때부터 세상에서는 또 문장검文章劍이라 일렀다고 한다.⁷⁷

바, 장현광의 검에 대한 애착은 ‘南冥風’의 계승적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김학수, 『17세기 旅軒學派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한국인물사연구소, 2010.03).

76 金涌, 『雲川集』 卷5, 〈叔父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鶴峯先生言行錄〉, “一日以長劍分贈曰 汝等知所以贈劍之意乎 須以此斬斷義理之關 以別其取舍也”

77 金涌, 『雲川集』 『年譜』, 〈庚午〉(1570), “至是背誦論語七卷 而不錯一字 祖考靑溪公贈寶劍一 并給水田以志喜 劍卽義城君以來世傳之寶 號菴蒲劍 後先生又傳于第三子敬齋公是楨 敬齋公傳之子敬窩公休烈 世且謂之文章劍云.”

김진은 10대조 김용비(金容庇)의 유품으로 일가의 보장(寶藏)이던 창포검(菖蒲劍)을 14세 소년인 작은손자 김용(金涌)에게 전수했고, 김용은 이 검을 1579년 8세 된 3자 김시정(金是楨)에게 전수했으며, 김시정은 다시 외아들 김휴(金休)에게 전수했다.⁷⁸ 김용이 김진의 차손이라는 점, 김시정이 김용의 3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창포검은 적중(嫡衆)의 계통적 질서와는 무관한 ‘양재전수(量才傳授)’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은 김용(金涌)과 김시정(金是楨) 사이의 전수 일화에서도 간취된다.⁷⁹ 청계가의 ‘전검전통(傳劍傳統)’은 김성일과 김용을 통해 착실히 계승되었고, 그 여맥은 김성일의 손자 김시추(金是樞)에게로 이어졌다.

78 세칭 「文章劍」의 전수자 金休는 張顯光의 생질이자 애제자였던 盧景任의 사위였다. 그 또한 장현광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여헌학통을 계승했는데, 역저 『海東文獻總錄』은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했던 장현광의 권유에 따른 결실이었다(金休, 『敬窩集』 卷7, 「海東文獻錄序」, “歲丙辰冬 余拜旋軒先生於遠堂 先生出數卷書以示之曰 此乃文獻通攷經籍考也 … 但既爲東方之人 則東方文獻 不可不知 吾君頗有博記之才 君所居近邑 得免兵火 書籍多有保完之處 倘能哀集聞見 繼此以述 則文獻足徵 博考是資 其功當不讓於古人矣”). 전술한 장현광의 검에 대한 인식과 결부시켜 볼 때 張顯光·金休는 의리관에 있어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김휴는 김으로 상징되는 ‘과단성’을 구체적으로 표출한 바 있어 주목되는데, 1621년 5월 경산감사 鄭造의 이름을 陶山書院 尋院錄에서 삭제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된다. 대북의 중진 관료로서 李爾瞻의 심복으로 지목되었던 정조에 대한 영남사람의 반감은 매우 컸다. 그 연장 선상에서 현직 감사의 이름을 儒籍에서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그 결행의 주체가 바로 김휴였다(『溪巖日錄』, 〈辛酉7月7日〉, “蓋去夏端午後 金休醉酒 與善山金滿 入陶院 讀書儒生榮川 張宇柱及錢毅有司 金光載同坐典教堂 佞披閱尋院錄 取掌務李貴男刀 先削鄭造名 光載止之不聽 又欲削鄭造名 貴男還刀不與 佞以指瓜破去造名 光載力止之不應 滿曰造名猶存 禮安士氣 反不如義城也”). 그의 의리관의 형성 및 표출에 菖蒲劍·文章劍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79 金涌, 『雲川集』 「年譜」 〈己卯〉(1579), “是楨卽敬齋 八歲時 先生命盆盪水中石菖蒲遊魚 公製進曰 淸風動翠莖 一雙魚躍水 誰知一盆中 足以玩天理 先生喜曰 兒有知 遂以世傳寶劍付之.”

하루는 문충공이 검劔을 내려 주면서 이르기를, '너는 검을 내려 주는 뜻을 알겠느냐? 마땅히 이 검으로 의羲와 리利를 참단斬斷하여 취사就舍를 분별해야 할 것이다.'고 하니, 부군께서 두 번 절하고 이를 받으셨다.⁸⁰

위 인용문은 김이옥金以鈺이 찬술한 김시추의 '단곡가상端谷家狀'이다. 조손간 학문적 수수와 의리적 계승 양상을 기술하는 대목인데, '사검賜劔'에 대한 서술은 전술한 '청계靑溪-운천雲川'의 수수 상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을 준다. 전자가 복수를 대상으로 하는 분증分贈이었다면 이 경우는 특정인에 한정된 증여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김성일의 의리관은 손자 김시추金是樞(1580~1640)를 통해 재연된다. 김성일의 장손 김시추는 유년기에 조부의 가르침을 통해 가학家學을 계승했고, 이 과정에서 시류時流에 영합하지 않을 재목으로 기대를 받았다.

문충공은 늘 '이 아이를 보니 필시 세상과 더불어 부양俯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고작 6세에 동몽선습童蒙先習 및 경구驚句 등의 말을 가르치면 반드시 반듯하게 앉아 어른처럼 송독誦讀했다.'⁸¹

철면어사鐵面御史 또는 전상호殿上虎로 불렸던 조부와의 생활 및 교육은 김시추의 인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명절名節을 자기自期하여 소절에 얽매이지 않는 대범성, 개과천선을 의미하는 현호'풍뢰風雷'는 그의 삶의 지향을 간명하게 대변했다. 특히 '분을

80 金是樞, 『端谷遺稿』附錄, 〈家狀〉(曾孫以鈺撰).

81 金是樞, 위의 책, 같은 곳.

가라앉히기를 산을 꺾는 듯이 하고(懲忿如摧山), 욕심을 막기를 구덩이를 메우는 것처럼 한다(窒慾如填壑)’는 좌우명은 치열한 자기단속 의지의 표명이었다.

김시추는 청소년기에 임진왜란이라는 외침의 참상을 몸소 겪으면서 집안의 ‘구심점(鶴峯)’을 잃었고, 중장년기에는 북인정권의 몰락과 인조반정이라는 정치적 격변의 한 복판에 위치하였으며, 말년에는 정묘·병자호란의 안보적 소용돌이 속에서 의분과 고심을 함께 했다. 급박했던 정치·사회·안보적 환경 변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인 난관이었지만 김시추는 여느 사대부와는 차별되는 특별한 사회적 의무와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세신의식(世臣意識)’과 ‘위신의식(危身意識)’이었다. 전자가 국가운영에 참여했던 사대부들이 지녀야 할 국가적 의리였다면 후자는 사림의 공론을 주도했던 집안의 자제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리였다. 1621년에 추진된 ‘청참이이첨소(請斬李爾瞻疏)’는 이 두 의리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단적인 사건이었다. 대북의 실세 이이첨(李爾瞻)의 처단을 강력하게 촉구한 이 상소는 영남사림의 공론이 반영된 집단적 정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남북분당, 류성룡과 정인홍의 정적화, 정인홍의 회퇴변척(悔退辨斥)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광해군과 대북정권에 대한 서인과 남인의 반감은 심화되었고, 여기에 폐모살제(廢母殺弟)로 일컬어지는 패륜성(悖倫性)까지 노정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정국의 불안과 윤리적 파행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이이첨이었고, 광해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공격도 본격화 되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기획·추진된 김시추(金是樞)의 ‘청참이이첨소’는 위로는 1565년 김우공(金宇宏)의 ‘청참보우소(請斬普雨疏)’를 계승하고, 아래로는 1650년(효종 1) 류직(柳稷)의 ‘우율승무반대소(牛栗陞庶反對疏)’, 1666년(현종 7) 류세철(柳世哲)의

‘복제소服制疏’에 영향을 미쳐 ‘영남유소嶺南儒疏’의 주요한 사례적 근거가 되었다.⁸² 물론 선조~광해조에도 영남사람들의 유소 활동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는 1604년 김윤안金允安·김봉조金奉祖 등의 ‘변무회퇴소辨誣晦退疏’를 들 수 있다.⁸³ 다만, ‘변무회퇴소辨誣晦退疏’의 공론이 서애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⁸⁴ ‘청참이이첨소’는 학봉계가 영남 사론嶺南士論 결집의 주제로 대두되는 시발점이 되었다.⁸⁵

‘청참이이첨소’의 추진이 발론된 것은 1621년 6월이었다. 최초 논의는 예천에서 이루어졌고, 참여자의 대부분은 강좌사림, 즉 퇴계학파권 인사들이었다. 이이첨의 국정 농단을 바로잡아 종사의 안녕을 보장하고, 사림士林의 부고府庫이자 공론公論의 근거인 영남의 의기義氣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설소設疏의 구실로 제시되었다. 이른바 ‘종사안정론宗社安定論’과 ‘영남의기론嶺南義氣論’이 ‘청참이이첨소’의 양대 명분이었던 셈이다.⁸⁶

82 조선후기 嶺南儒疏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李樹健, 「正祖朝의 嶺南萬人疏」, 『嶺南史學』 創刊號, 1985; 李樹健, 「朝鮮後期 嶺南儒疏에 대하여」, 『斗溪李丙熙博士九旬紀念韓國史論叢』, 1985; 權五榮, 「1881年の 嶺南萬人疏」, 『尹炳爽教授華甲紀念近代史論叢』, 1990;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83 『선조실록』 선조 37년 6월 3일(임오).

84 金允安은 김성일과 교제가 돈독했지만 사승관계의 기축은 서애학통에 있었고, 金奉祖의 경우 아우 榮祖가 김성일의 사위, 역시 아우인 延祖·應祖가 김성일의 손서였으므로 학봉가와 척연이 매우 깊었지만 그 또한 서애고제로서 1620년 류성룡·김성일의 蘆江書院 합향 때도 西厓門派를 대변했다(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85 『請斬李爾瞻疏』는 퇴계학파권 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정경세를 비롯한 西厓門派는 북인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이이첨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소사를 추진하는 것은 淸論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동참을 거부했고, 류성룡의 아들 柳軒 또한 소사를 적극 만류한 바 있다(鄭經世, 『愚伏集』 卷14, 〈答左道疏會文爲本州儒生作(辛酉)〉: 柳軒, 『修巖集』 卷1, 〈與金孝仲金子峻玲金以志光繼(辛酉)〉).

이제 누가 소두를 맡느냐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일각의 비판 속에서도 대북정권과 이이첨의 권력이 견재한 상황에서 정권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상소는 사실상 성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⁸⁷ 동년 7월 20일 소두 선정 및 소사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유회가 안동에 설치되었다. 총 6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시추金是樞가 소두로 추대되고, 채선견蔡先見·이지형李之馨이 장의掌議에 선임되었다.⁸⁸ 지휘부, 특히 소두는 개인의 인망과 가문적 배경을 고려한 추대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후일 류세철柳世哲 ‘복제소服制疏’의 추진 주체였던⁸⁹ 홍여하洪汝河는 당시 김시추의 ‘소두추대’를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신유년에 영남의 유장儒將이 대궐에 앞드려 상소하며 간신 이이첨李爾瞻 등을 참수하기를 청하였다. 유림儒林의 고사故事에는 반드시 명가의 자제 가운데 당세當世의 중망重望을 받는 자를 가려 소수疏首로 추대하는데, ‘학봉鶴峯 김선생에게 어진 손자가 있으니, 곧 상사공上舍公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 모두 ‘좋다.’고 했다. 공은 거듭 사양했지만, 중론은 오히려 누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공이 가대부家大夫 세마공洗馬公에게 여쭙어 보니, 세마공이 말하기를

86 金是樞, 『端谷遺稿』, 〈辛酉疏事類末〉, “賊臣李爾瞻 惡浮莽卓 罪通天地 凶謀既溢 情跡彰露 館學齊起 請討方急 而兪音久闕 常刑尙稽 宗社安危 迫在朝夕 凡有血氣者 孰不共憤 惟我嶺南 多士府庫 公論根抵 夙蒙列聖培養之恩 親炙先賢獎誨之澤 稍知愛君討逆之義 而況此公議 已發於太學首善之地 則此乃齊聲奮臂沐浴共討者也.”

87 請斬李爾瞻疏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99~213쪽 참조.

88 金是樞, 『端谷遺稿』, 〈辛酉疏事類末〉.

89 洪汝河, 『木齋集』卷11, 附錄, 〈行狀〉, “丙午春 嶺南士論齊發 將有叫闕之舉 或曰 時已晚矣 不必追論已往 公憤然曰 事係綱常 不可不一爲明卞 極意論列 訂既往之失 開後來之惑 時之早晚 非所論也 衆議遂定.”

‘너는 힘을 다하라. 너는 비록 포의布衣지만 세신世臣이다. 선군자先君子의 뜻이 충렬순국忠烈殉國에 있었음을 너도 알 것이다. 네가 나라에 보답하여 선군자의 가르침에 욱되게 하지 않으면, 비록 죽더라도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 너는 힘을 다하라.’라고 했다. 상사공이 울면서 재배하고 이별을 고하며 말하기를 ‘감히 공경히 아버지의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곧바로 소청疏廳으로 나아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많은 선비를 대함에 자못 엄숙했고, 일 처리가 침착하고 차분하여 소유들이 이에 힘입어 다소 안정을 찾았다.⁹⁰

‘학봉현손鶴峯賢孫’, ‘세신의식世臣意識’, ‘학봉충렬鶴峯忠烈’로 요약되는 위 인용문은 김시추를 김성일의 충렬·의리론의 계승자로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김성일과 김시추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아들의 사지행死地行을 권면하는 김집의 태도 또한 17세기 초반 학봉가 가풍의 심지心地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김시추의 행위를 학봉가의 가학 또는 가풍의 계승이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극후鄭克後에게서 더욱 구체화 된다. 경주 출신의 여현고제 정극후鄭克後는 ‘참참이이참소’의 지휘부로서 김시추와 함께 배소倍疏·상경하며 동고同苦했던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친륜에 버금가는 교계交契를 맺었고,⁹¹ 위난 속에서 드러난 김시추의 직절直節한 기상은 정극후가 그를 ‘군자君子’로 기억하는 이유가 되었다.

90 洪汝河, 『木齋集』卷5, 〈記辛酉疏事〉.

91 鄭克後, 『雙峯集』卷1, 〈途中贈別金子瞻是樞仍示同行諸賢〉, “離合人間本不期 此行何事此分歧 廣通街上衝泥日 敦化門前待死時 瀝血幸蒙天日照 誅姦已許聖心知 桑鄉父老應相問 三月吾邦見大治.”

김자침金子瞻의 시에 차운하다

예전에 일찍이 알고 지냈더니	昔年曾識面
오늘 만나니 천륜과 다름없네	今日若天倫
보배로운 구슬은 본디 흠 없고	寶玉元無玷
굳센 쇠는 갈아도 닳지 않는 법	堅金亦不磷
노회한 간신이 먼저 혼비백산하니	老姦先褫魄
온 나라가 다 신령에 놀라네	舉國共驚神
그런 끝은 절개 내게 어찌 있으랴	直節吾何有
그대야말로 참된 군자이시지	子誠君子人 ⁹²

김시추에 대한 정극후의 인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기록은 ‘별김자침서別金子瞻序’이다. 이 글은 봉소奉疏 이후 회로에 문경 견탄犬灘에 이르러 동고同苦한 제우諸友들과 작별할 때의 소회를 적은 것이다.⁹³ 정극후의 입론은 ‘정기론正氣論’에서 시작된다. 그의 인식에 따르면, 천하의 지극히 끈고 강한 기운인 정기가 응집된 곳은 영남이며, 영남에 충절忠節·도덕道德의 명사가 다출多出한 것도 정기 때문이었다. 정기는 다시 원기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영남을 사림공론의 연수淵藪로 만들었는데, 정기의 상징적 존재가 김성일이면, 그 가풍을 이어 목숨을 걸고 공론을 당당하게 펼친 사람이 바로 김시추였다. 이처럼 김시추의 행위는 항상 김성일과의 관련성 속에서 조명되고 또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학봉가풍의 상속성相續性이 사회적인 신임을 받았음을 뜻한다.

92 鄭克後, 『雙峯集』卷1, 〈次金子瞻韻〉.

93 金是樞, 『端谷遺稿』, 〈東臯贈別序詩〉.

천하의 정기正氣가 두루 충만하게 흘러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모인 정기는 중국 동쪽, 동쪽이면서도 남쪽에 모여 있으니, 남쪽은 나의 고향이다. 신라 이후로 이 정기를 지닌 자는 혹은 충직함으로, 혹은 절의로, 혹은 도덕으로 걸출하게도 이 고향에서 무수히 나왔다. 이러한 유평이 사라지지 않아 지금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사람이 옛 사람에 미치지 못하지만 옛 사람에게 굳이 많이 사양할 것도 없다. […중략] 옛날에 우리 학봉鶴峯 선생이 실로 이곳에서 나왔으니, 조정에 있으면서 풍모와 절개가 늠름하였던 것은 아직도 사람들의 이목에 남아있다. 이 또한 우리 영남의 정기가 모여 있었던 까닭이다. 이제 자첨子瞻이 곧은 절개로 대대로의 집안 가풍을 이었으니, 아, 학봉 선생에게 훌륭한 손자가 있는 것이다.⁹⁴

정극후의 인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김시추를 군자로 평가했던 것은 신명身命을 담보했던 모험성冒險性보다는 의리의 천명이라는 공도론公道論과 이익을 피하지 않는 청담淸淡함에 있었다.

처음에 자첨子瞻이 소행疏行을 떠나려고 할 때 사람에게 ‘의리義理를 밝히고 리를 피하지 않으며 도道를 밝히고 공功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참으로 일을 처리하는 핵심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오니, 신하가 되어서는 충을 다하다 죽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를 다하다 죽는 것으로 스스로 힘쓰고, 또 이러한 마음가짐을 자손에게 가르쳐 우리 영남의 정기正氣를 실추시키게 하지 않는다면, 뒷날의 사람이 지금을 보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사람이 옛날을 보는 것과 같으리라.⁹⁵

94 鄭克後, 『雙峯集』卷1, 〈別金子瞻序〉.

95 鄭克後, 위의 책, 같은 곳.

즉, 정극후는 의리론에 바탕한 김시추의 일련의 처사處事를 영남사림의 정기正氣를 엄수嚴守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그 점을 매우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사림 관료로서 의리의 실천에 치열했던 김성일의 정신세계, 조손간 검劔의 수수를 통한 그것의 가풍적 주입, 김시추의 소두 추대와 김집의 권면은 동일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봉가 의리론의 계승 및 적용의 과정이었다.

2) ‘호란근왕활동胡亂勤王活動’: 세신의식世臣意識의 국가적 표출

1621년 종사안정론宗社安定論과 영남의기론嶺南義氣論에 바탕하여 추진한 ‘청참이이첨소’가 학봉의리론의 일가적 계승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정묘·병자호란 당시의 근왕론勤王論은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사대부 본무론本務論의 적극적 표현이었다. 특히 후자는 세신의식世臣意識의 발로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황은 정묘호란丁卯胡亂, 당시 김시추의 근왕활동이 김집과의 숙의를 통해 모색되고, 발현되었다는 점에서도 간취할 수 있다. 김성일의 충의忠毅가 순국으로 귀결되었다면 김집·김시추 부자의 근왕활동은 그 충의론忠毅論의 당연한 계승의 과정이었다.

정묘호란 당시 영남의 근왕활동은 호소시號召使에 차정된 장현광張顯光·정경세鄭經世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들 두 사람의 탄탄했던 문인 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장현광의 지휘 속에 영남의 진義陣이 결성된 것은 1627년 1월 27일이었다. 이 때 김시추는 안동의병장에 차정되었고, 아우 시권是權 또한 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사실상 일가 3부자가 근왕론을 주창主唱·협찬協贊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호소사號召使 장여헌張旅軒이 열읍에 관문關文을 보내 의병장을 분정分定했는데, 안동은 김시추金是樞, 예안은 이영도李詠道, 예천은 장여헌張汝翰, 봉화는 권극명權克明, 진보는 김위金渭, 청송은 조준도趙遵道, 영해는 이시명李時明, 용궁은 정윤목鄭允穆이 차정되었다.⁹⁶

이황李滉의 손자(李詠道), 정탁鄭琢의 아들(鄭允穆), 장흥효張興孝의 사위(李時明) 등 모두 가문적 배경과 개인적 인망을 지닌 인사들이 의병장에 차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시추가 김집에게 보낸 서간에 따르면, 당초 안동의병장에는 류진柳軫이 물망에 올랐으나 입장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⁹⁷ 의진 구성에 있어 금계 인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우려한 것에서는 의병장으로 차정된 자신의 난감한 처지를 넘어 근왕에 임하는 사족사회의 현실적 분위기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김집의 50석石 규모의 의량 지원은 난황을 돌파하는 긴요한 처방에 다름 아니었다.

금계金溪 동네 마을의 사우들이 어제는 하나도 회중會中에 오지 않아 물의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이 뜻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진중陣中의 사우들이 군량을 대기 어려운 점을 걱정하고 있던 차, 조 50石을 원조하셨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⁹⁸

물론 김시추의 의병장 수행에 대해서는 주변의 비판적 시각이 없지

96 金垞, 『溪巖日錄』, 〈丁卯正月27日〉.

97 金是樞, 『端谷遺稿』, 〈上家大人〉(丁卯正月廿七日), “大將則柳軫爲之 而時在尙州邑內以請來事 發送軍官 而其肯來與否 未可知也.”

98 金是樞, 위의 책, 같은 곳, “金溪洞內士友 昨日全不來會 物議頗喧 此意伏望命傳如何.”: 〈上家大人〉(丁卯二月初一日).

않았고,⁹⁹ 실제적 출병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김시추의 의병장 수임(受任), 김집의 의량 지원은 분명 세신의식에 바탕한 자발적 근왕활동이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은 병자호란 때도 그대로 이어져 김시추는 안동 의병대장 이홍조(李弘祚)를 보좌하는 유진장으로 활약했다.¹⁰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시추의 근왕론은 김성일의 살신적(殺身的) 충의론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아버지 김집의 후원 속에서 양성·발현됨으로써 학봉가풍의 중요한 가닥을 형성하게 된다. 1728년 무신란(戊申亂) 발발시 김시추의 현손 김복렴(金復廉)이 창의하여 도총군관(都摠軍官)·소모도감(召募都監)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근왕론의 철저한 계승의 과정이었고,¹⁰¹ 나아가 19세기 후반 김흥락(金興洛)의 의병활동과 그 일문의 독립운동 또한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여지가 크다.

5. 18세기 학봉가풍(鶴峯家風)의 발전 양상

: 『鶴峯先祖行狀(학봉김선친행장)』과 『여자초학(女子初學)』을 통해 본
학봉가의 여성교육론(女性教育論)

여성교육에 관한 학봉가의 가풍적 전통은 18~19세기로 이행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런 흐름은 ‘가문의식’과 깊은 관련성이 있었다. 즉, 학봉가에서는 출가를 앞 둔 딸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 지

99 金垚, 『溪巖日錄』, 〈丁卯2月2日〉.

100 金垚, 위의 책, 〈丁丑1月4日〉.

101 『景泗流芳』(景泗流芳編纂委員會, 1974), 〈金復廉〉.

침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 구체적 사례는 김성일의 7세손 김주국(金柱國, 1710~1771)과 9세손 김종수(金宗壽, 1761~1813)에게서 찾을 수 있다.

1770년 1월 김주국은 김성일의 ‘학봉행장(鶴峯行狀)’을 한글로 완역·필사하여 『鶴峯先祖行狀(학봉김선칭행장)』이라 표제했고, 동년 10월 19일 이 책자를 양동으로 시집간 다섯째 딸 손실(孫星建의 처)에게 증여한 바 있다. ‘학봉행장’은 정구가 김집이 지은 ‘선부군사적(先府君事蹟)’, 김용(金涌)과 최현(崔暉)의 ‘학봉선생언행록(鶴峯先生言行錄)’을 기초 자료로 삼아 1617년 칠곡 사양정사에서 탈고한 장편의 전기문이다.¹⁰² 김주국이 언해·필사·성책한 ‘학봉행장’의 용도는 출가할 딸의 교육용이었다. 결국 이 책자는 명가 자손으로서의 당당함, 명조(名祖)의 행덕(行德)에 부끄럽지 않는 부덕을 지닐 것을 당부하는 ‘가문적(家門的) 훈계’였던 것이다.

경인 시월 십구일 장책하여 제오녀 손실을 주노라. 중한 행장이니 애중하고 함부로 내들리지 말아라. 교정을 미처 못했으니 그릇 쓴 데가 많으리라.¹⁰³

김주국이 『鶴峯先祖行狀(학봉김선칭행장)』을 출가 여식을 위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였다면 손자 김종수는 『여자초학(女子初學)』이라는 교재를 직접 편집함으로써 교육의 범주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 『여자초학(女子初學)』은 1797년 선산 해평 전주최씨 인재가문(詞齋家門)에¹⁰⁴ 출가

102 김학수, 「정구 문학의 창작현장과 유적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103 『鶴峯先祖行狀(학봉김선칭행장)』(의성김씨 학종종택 雲章閣 소장).

104 김종수의 장녀서는 崔雲錫(進士)이다. 최운석은 김성일의 고계로서 ‘학봉행장(鄭述撰)’의 저본이 된 ‘鶴峯言行錄’의 찬술자 崔暉의 8세손이며, 정조 때 참판을 지낸 崔光壁의

할 장녀의 교육용으로 편집한 것인데, 학봉가가 지향했던 여성관이 집약되어 있다.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훈교를 받지 못하여 종신토록 통한이 깊은지라. 너를 가르쳐 아버지의 교훈을 받들게 함이니 내 뜻을 받아 어그리지 아니하면 자식의 도리를 할가하노라. 세 정사 지월 일에 아버지는 장녀를 주노라. […중략] 정사년 지월 염오일에 시하여 납월 초 칠일에 필하니 글씨 고저와 사투리 바히 몰라 추술하기를 면치 못하되 경계할 글만 보고 잊지 말면 내 근고히 써준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식이 될 것이니 조심할지어다.¹⁰⁵

김종수는 5세에 아버지 김광찬金光燦을, 11세에 조부 김주국金柱國을 여의면서 유년 시절을 단약하게 보냈지만 이상정李象靖의 가르침을 받아 학자로 성장했고,¹⁰⁶ 1792년(정조 16) 사마시에도 합격했다. 경제經濟의 기국이 있었던 그는 천거를 입어 참봉·직장·좌랑 및 연풍현감을 역임했고, 강필효姜必孝·채제공蔡濟恭 등 경향 명사들과의 교유도 깊었다. 김성일의 산소가 있는 가수천佳樹川에서의 독서, 『동자례童子禮』 및 『해사록海槎錄』의 후서後書, 의례에 있어 ‘문충공봉선제규文忠公奉先諸規’의 준용 등 그는 ‘학봉정신’의 수용 및 발양에 부신했다.

손자이다. 최광벽의 어머니 진성이씨는 퇴계의 6세손 李守謙의 따님이고, 처남 김한동은 1792년(정조 16) 壬午義理를 밝힐 것을 주장한 영남유소를 주도할만큼 정치적 비중이 컸던 인물이었으며, 사위 權堧은 영조조 기호남인의 영수 權以鎭의 현손이었다.

105 金宗壽, 『女子初學』, 〈序文〉(성병희, 『민간계녀서』(형설출판사, 1980), 29쪽에서 재인용).

106 金宗壽, 『聽松遺稿』附錄, 〈家狀〉, “一日 謁大山李先生于湖上 問讀書當何先 先生答以論語一書 最切於日用 府君深自服膺 中年以來 沈潛反覆 多在是書”. 김종수의 관례시 實으로 초빙되어 字를 지어주며 의식을 주관한 사람도 李象靖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김성일 ⇒ 김집 ⇒ 김주국을 통해 면면하게 이어졌던 여성교육에 천착했고, 『여자초학(女子初學)』은 그 결실이었다. 『여자초학(女子初學)』은 크게 부덕을 서술한 부분과 조선의 역사와 풍물을 서술한 부분, 선대의 기일을 비롯하여 복제·육갑·수법 및 가족의 생일을 기술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을 이루는 부덕은 언행(言行)·음식(飲食)·기명(器皿)·의복(衣服)·어노(御奴)·제사(祭)·빈(接賓)·사친(事親)·양아(養兒) 등 부녀자와 관련된 일상(日常)의 모든 사안을 망라하고 있는데, 그 종지(宗旨)를 이루는 것은 ‘순(順)함의 부덕(婦德)’이었다.

여자의 행실은 순함이 제일 행실이니 백사에 순하면 길하고, 순치 아니하면 흉하니, 어려서는 부모에게 순하고, 동생에게 순하고, 성인하면 시부모에게 순하고, 가장에게 순하고, 지친에게 순하고 [...종략] 만일 순치 아니하면 부모에게 득죄하고, 동생에게 실화하고, 가장에게 사대하고, 지친이 하적하고, 이웃이 혼구하고, 노복이 원망하리니, 그런 고로 순하면 사사에 길하고, 순치 아니하면 사사에 흉하니, 바라기로 순하기로 네 일신의 부덕으로 삼아 일생 한결같이 조심하라.¹⁰⁷

김종수가 강조한 ‘순함’은 무조건적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순종하는 ‘순리’였다. 이것은 김성일이 평생을 복음했던 ‘무자기(母自欺)’ 석자와 아래 ‘학봉행장’의 기술과 같은 맥락에 있다.

몸가짐은 반드시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삼았고,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107 金宗壽, 『女子初學』, 〈序文〉(성병희, 앞의 책, 29쪽에서 재인용).

충서(忠恕)를 위주로 삼았다.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들으면 이를 칭찬하면서 흠모하였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들으면 마치 자신에게 물든 것처럼 피했다.¹⁰⁸

김중수가 출가 여식의 교육에 이렇게 정성을 기울인 것은 ‘예법지가(禮法之家)’로서의 자존의식의 소산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중수는 『여자초학(女子初學)』의 저술 배경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집은 대대로 예법을 지키는 집이라 구대조 학봉 선생은 도덕이 높으시고 예법이 밝으사 자손이 세대로 준수하여 예법가로 도내로 들렸다 [...중략] 너는 위인이 남만 못하여 재주없고 소견이 불치하고 영리하고 민첩치 못하는 듯 하니 극히 두려워 하노라. 부녀의 하념 착한 행실은 이 책중에 대강 기록하였으니 이반하여도 잊지 말고 본받아 행하면 남에게 그르다 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니 아무 일이라도 이녁을 그르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원망 말고, 이 책에 쓰인 말을 자세히 상고하여 행하면 내 잘하며 못한 것을 알 것이니, 일생에 잊지 말고 명심하여 보고, 부질없는 이야기 책 보노라 하지 말 것이니, 언문책도 혹 선현행장이나 소학 번역한 것이나 보면 좋으니라.¹⁰⁹

김성일 이래 도덕(道德)과 예법(禮法)으로 일군 ‘예법가(禮法家)’의 면모 유지를 위해서는 자녀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특히 출가할 딸자식의 경우 더욱 염려되어 ‘부행(婦行)’의 지침으로서 이 책을 편집한 것이었다. 마지막에 언급한 ‘선현행장(先賢行狀)’은 김주국이 번역한 ‘학봉행장(鶴峰行狀)’을 포함하여 모범이 되는 선현의 전기류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 대목

108 鄭述, 『寮岡集』續集 卷6, 〈鶴峰金公行狀〉.

109 金宗壽, 『女子初學』(성병희, 앞의 책, 41~42쪽에서 재인용).

에서도 가풍의 상전성(相傳性)을 감지할 수 있다.

조선의 역사와 풍물 및 제도를 서술한 부분에서는 역사를 강조했던 학봉가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아무리 부녀라도 고금을 모르고는 답답하기를 면치 못하는 고로 인물의 현부와 산천의 원근과 풍속의 미악과 물산의 다교와 작위의 고하와 과거의 절목을 대강 기록하니 이도 알아 둘 것이니라.¹¹⁰

역사에 대한 애착과 강조는 학봉학(鶴峯學)의 핵심 주제의 하나였다. 김성일은 특히 우리 역사에 관심이 깊었는데, 1590년 통신사행(通信使行) 때의 일화는 역사의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 김성일은 사행을 가던 도중 고향 안동에 들렀고, 이 때 김윤안(金允安)이 송별시에서 ‘제상충훈(堤上忠魂)’을 언급하자 이를 특별하게 받아들인 바 있다.

조정 사대부의 별장(別章)이 수 백 편에 이르지만 누구도 박제상(朴堤上)의 일을 언급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가 그것을 언급하였구나.¹¹¹

김성일이 우리의 역사를 언급한 김윤안의 송별시를 으뜸으로 꼽았던 것은 민족사에 관심이 깊었던 역사의식의 소산이었다.¹¹² 1570년 예문

110 金宗壽, 위의 책(성병희, 앞의 책, 42쪽에서 재인용).

111 金誠一, 『鶴峯集』附錄 卷4, 〈奉使日本時贈行詩金允安〉, “東籬日記云 鶴峯先生奉使日本 行過桑鄉 余以拙詩奉呈 先生舉手而揖曰 朝中士大夫別章 幾至數百篇 無人及於朴堤上事 君詩及之矣”

112 1394년 경주부에서 간행된 『三國史記』 3차판본의 간행자로서 발문을 쓴 金居斗가 김성일의 7대조라는 점도 의성김씨의 역사학적 가풍을 이해하는데 참조가 된다.(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三國史記』(1) 校勘原文篇, 479쪽, 〈金居斗跋文〉).

관 검열 재직시 이황에게 사관史官의 법도와 직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¹¹³ 1571년 『당후일기堂後日記』에서 채록한 이황의 행적을 ‘퇴계선생사전退溪先生史傳’으로¹¹⁴ 명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특히 일본 사행시에 지은 ‘조선국연혁고이朝鮮國沿革考異’와 ‘풍속고이風俗考異’는¹¹⁵ 역사에 대한 깊은 식견의 결과였다. 김종수가 『여자초학女子初學』에서 역사·풍물·제도 등을 언급한 것은 역사를 강조했던 학봉가풍의 올곧은 계승의 과정이었다.

먼저 역사의 경우, 고대로부터 삼국·신라·고려로 이어지는 통사를 개략한 다음 평안·함경·황해·강원·경기·충청·경상·전라도 순으로 8도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문화를 설명하였는데, 단연 경상도의 비중이 높다.

김종수는 경상도를 도덕과 예법을 지키는 ‘도학지향道學之鄉’·‘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는 전제 위에서 입론하고 있고, 이른바 ‘영남문화嶺南文化’의 양성 및 계승자로서 이황·이언적李彦迪·권벌權穰·류성룡·김성일·정구·장현광·정경세鄭經世·이준李埈·김주金澍·길재吉再·하위지河緯地·박영朴英·정봉鄭鵬·최현崔峴·김우옹金宇顛·조식曹植·정온鄭蘊·황준량黃俊良·이현보·김령金玲·정탁鄭琢을 거론하고 있다. 위의 인식은 학계의 통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18세기 학봉가의 명현·명가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주목되며, 조식·김우옹·정온 등 퇴계학파와는 대척점에 있었던 남명학파 계열의 인물까지 수용한 것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전라도에 대한 김종수의 인식은 자못 인색했다. 풍류風流와 미색美色을 숭상하고, 사치를 좋아하여 문학이 적고 과거 합격자 또한 영남만 못하

113 金誠一, 『鶴峯集』續集 卷4, 〈上退溪先生問目〉·〈上退溪先生〉.

114 金誠一, 위의 책 續集 卷5, 〈退溪先生史傳〉.

115 金誠一, 위의 책 卷6, 〈朝鮮國沿革考異〉·〈風俗考異〉.

다는 것이 인식의 골자였다. 그럼에도 그는 기대승^{奇大升}과 김인후^{金麟厚}를 호남의 석학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서 균형 감각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당론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4색 당파의 연원을 약술하고 각 당파별 영수로 류성룡·허목^{許穆}(남인), 이이^{李珥}·송시열^{宋時烈}(노론), 윤증^{尹拯}(소론)을 거명한 것에서는 적확성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수가 부덕은 물론 역사·문화·풍물·당론·제도적 지식까지를 포괄하는 『여자초학^{女子初學}』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사환활동에서 얻은 지식정보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무엇보다 『여자초학^{女子初學}』은 사대부가 여성의 필수 지식을 담은 교육용 서적이라는 점에서 학봉가 여성 교육의 실체와 거기에 투영된 역사의식의 계승성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6. 19세기 학봉가^{鶴峯家風}의 변화 양상

：출사의 재개와 학봉경세론^{鶴峯經世論}의 응용

1) 김종수^{金宗壽}：학봉경세관^{鶴峯經世觀}의 재적용

김성일에 의해 정점에 다달았던 학봉가의 사환전통은 아들 및 손자대를 거치면서 그 기세가 크게 꺾이게 된다.¹¹⁶ 비록 작은 손자 김시권^{金是權}을 비롯하여 김응림^{金應濂}·김기찬^{金驥燦} 등 일부 문과 합격자가 배출

116 학봉종가에 한정할 때, 金溙은 세마, 金是樞는 경력, 金燿는 빙고별검을 지냈고, 金以鉦과 金淑濂은 각각 將仕郎과 通德郎의 품계만 지냈을 뿐이다. 김집과 김규의 경우 거의 行公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환 경험을 가진 사람은 金是樞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되었지만 그것이 관료적 현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후기 영남남인 전반의 정치적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학봉가의 경우는 김성일이 갖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서인계의 철저한 견제 속에 놓임으로써 더욱 침체된 측면이 있었다.

18세기 중반까지 침체되었던 학봉가의 사환적 진출에 일정한 전기를 마련한 사람은 김성일의 9세손 김종수(金宗壽, 1761~1813)였다. 그는 1792년 사마시에 합격했고, 1797년 정조의 구전정사(口傳政事)로 정릉참봉(靖陵參奉)에 임명되어¹¹⁷ 벼슬을 시작했다. 출사의 배경이 문음인지 추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정조의 ‘친영남책(親嶺南策)’과 채제공(蔡濟恭)의 후원이 작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비록 하급직이나마 실직 수임(受任)은 학봉가 사환전통의 실제적인 재개를 의미했다.

이후 그는 효릉참봉(1797)·사도시봉사(1799)·내섬시직장(1801)·선릉직장(1801)·장흥고주부(1803)·형조좌랑(1803)을 거쳐 1803년 연풍현감에 임명되는 등 전후 약 10여 년 세월을 관인으로 보내게 된다. 관직 사회에서 그는 ‘학로지손(鶴老之孫)’으로 일컬어지는 일이 많았는데,¹¹⁸ 이는 관료적 성장에 있어 장점인 동시에 부담일 수 있었다.¹¹⁹

117 『日省錄』 正祖 21年 12月 25日; 『日省錄』 正祖 21年 12月 26日.

118 金宗壽, 『聽松遺稿』, 〈祭樊巖相公文〉(庚申正月), “小子以先蔭繫祿于茲 先生待之甚厚 戊午秋 病臥泮邸 出沒人鬼者 幾屢月 先生聞而驚曰 吾不忍見鶴老之孫 死於旅邸也. 出藥以助之 要醫以救之 加減之間 不絕於門外 小子之得至有今日 果誰之賜也.”

119 김종수의 관직생활의 가장 화려한 장면은 1798년 孝陵參奉 재직시와 1799년 司禦寺奉事 재임시였다. 1798년 12월에는 宣醮에 참가하여 동참한 제신들과 銀盃詩를 갱진했고, 1799년 12월에는 정조의 左氏傳 冊去禮에 참여하여 오언율시를 갱진하는 영광스런 기회를 얻었다(金宗壽, 『聽松遺稿』, 〈戊午十二月 設應製宣醮…〉; 〈己未十二月 日上畢讀左氏書 慈殿設冊去禮 上命侍臣會食 仍製五言律 命諸臣及蔭進在泮者 廣進〉).

김중수는 ‘외관내명外寬內明’하면서도 ‘강의불요剛毅不撓’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특히 임관臨官에 있어 ‘강의불요剛毅不撓’를 고집한 것에서는 ‘학봉풍도가 옛모이는데, 아래 형조좌랑 재직시의 일화는 그의 임관臨官 자세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한다.

어느 재상이 자제 가운데 호협豪俠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었다. 당상의 여러 재신宰臣들도 두려워 감히 그 죄상을 논하지 못했지만 부군은 그를 치죄함에 있어 조금도 봐줌이 없었다. 여러 재신들이 머리를 움츠리며 서로 말하기를, ‘예로부터 영남 사람들은 우직愚直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다’라고 하자 부군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직愚直함이 아니다. 국법國法을 지키려 함일 뿐이다’고 했다.¹²⁰

김중수의 관료관은 강직함과 준법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직무가 작다고 해서 나태함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¹²¹ 7년을 서울에서 사환하는 동안 공무가 아니면 권문權門을 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1803년 연풍현감 부임시에는 김성일의 ‘나주정사羅州政事’를 치민의 표본으로 삼았는데, 아전을 단속하여 백성을 구휼하고, 청검淸儉으로서 율신律身한 것은 김성일이 나주에서 행한 면모와 매우 흡사했다.¹²² 임지에서 시종했던 제자諸子들에게 사치와 분화紛華의 풍조를 극도로 경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¹²³

120 金宗壽, 『聽松遺稿』附錄, 〈家狀〉(孫興洛撰).

121 金垕, 『龜窩集』卷1, 〈挽族君一老宗壽(乙亥)〉, “不以官小怠 奉公無所闕.”

122 金涌, 『雲川集』卷5, 〈叔父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鶴峯先生言行錄〉, “既下車 必具帽帶臨民 雖祈寒盛暑 不廢 莊以莅下 寬以使衆 爲政 以恤鰥寡抑豪右爲先 而尤嚴於律己.”

123 金宗壽, 앞의 책, 附錄, 〈家狀〉(孫興洛撰).

위로는 ‘강의불요剛毅不撓’했고, 아래로는 ‘화후관서和厚寬恕’했던 그의 현감 생활은 죄인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파탄을 맞았다. 당시 그의 치하治下에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죄수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평소 그의 무고함을 긍휼히 여겼던 김종수는 ‘도주죄수’의 체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고, 마침내 그로 인해 단양에 유배되는 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죄수의 도주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결코 올바른 관인적 처신일 수는 없지만 그는 묵인을 통해 인정仁政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 인정은 김성일의 ‘모별자母別子’¹²⁴란 시에 짙게 배어 있는 ‘인간애人間愛’·‘동포의식同胞意識’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 그가 죄수에 대해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면서 단양유배를 감수한 것에서는 ‘실보오국失報誤國’의 지탄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던 김성일의 강인성이 투영되어 있었다.

결국 김종수가 출사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가계家格의 신장과 ‘학봉경세관’의 계승적 적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지향은 1803년 『장릉지莊陵誌』 개수 때 김성일의 ‘장릉소莊陵疏’(請魯陵復位六臣復爵宗親敍用疏)¹²⁵를 수지소修志所에 제출한 것에서도¹²⁶ 확인된다.

학봉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랬겠지만 김종수의 ‘학봉계승의식’은 더욱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는 창포검菖蒲劍을 매개로 학봉가 특유의 ‘의리정신’을 되새기는가 하면 유년 이래 김성일의 유택이 있는 가수천佳樹川

124 金誠一, 『鶴峯集』卷1, 〈母別子〉.

125 金誠一, 위의 책 續集 卷2, 〈請魯陵復位六臣復爵宗親敍用疏(辛未)〉.

126 朴時源, 『逸圃集』卷1, 〈歲癸丑 命修莊陵志 金一老宗壽 奉鶴峯先生復莊陵疏 獻于修志所 因與同歸訓贈〉, “先生樹立凜如霜 當日琅函萬世光 明月南樓鶻血古 朝陽北闕鳳聲長 清時曠典輝仙屐 故宅遺文出寶藏 闡發非吾私賀語 大東由是振頽綱.”

에서의 독서,¹²⁷ 별업이 있던 석문정石門亭에서의 문회文會를¹²⁸ 통해 가학·가풍의 체득에 힘썼다. 특히 ‘시골사람을 면해야겠다’는¹²⁹ ‘계축원 조癸丑元朝’에서의 다짐, ‘자탄自歎’이란 시에 피력된 ‘이루지 못한 남아男兒의 일’과 ‘고인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탄’에서는¹³⁰ 김성일처럼 조정에서 경륜을 펼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김성일이 중국서 도입한 『동자례童子禮』에 후서를 붙여 선훈先訓의 체행體行 강조,¹³¹ 유사한 『해사록海槎錄』의 수득搜得,¹³² 증직贈職·증시贈誼 사실을 추각하기 위한 ‘학봉묘갈鶴峯墓碣’의 개갈改碣은¹³³ 학봉계승 의식의 실사적實事的 표출이었다. 특히 선릉참봉 재직시에는 ‘선릉등록宣陵謄錄’을 개수改修하였는데,¹³⁴ 이는 학봉가 예학禮學의 국가적 적용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김종수는 고관에 오르지 못했고, 또 중도에 유배형에 처해짐으로써 관료로서의 경륜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그의 출사는 학봉가의 사환전통의 재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아들 김진화金鎭華가 대를 이어 출사하여 무려 6고을의 수령을 역임하며 당상관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도 김종수의 역할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127 金宗壽, 『聽松遺稿』, 〈辛亥臘月讀書于佳樹川〉.

128 金宗壽, 위의 책, 〈癸丑暮春與權丈思浩李丈堉遊石門次韻〉, 〈謹次鳶魚石門會中韻〉.

129 金宗壽, 위의 책, 〈癸丑元朝〉, “一年虛度又逢春 依舊嚶嚶學未新 三十經來無所見 自今烏得免鄉人.”

130 金宗壽, 위의 책, 〈自歎〉, “小成不是男兒事 恨未平生學古人.”

131 金宗壽, 위의 책, 〈書童子禮後〉.

132 金宗壽, 위의 책, 〈書家藏海槎錄後〉.

133 金宏, 『龜窩集』卷11, 〈鶴峯先生墓碣銘〉.

134 金宗壽, 앞의 책, 〈宣陵謄錄序〉.

2) 김진화(金鎭華) : 학봉관료관(鶴峯官僚觀) 재천명

어려서 가정 및 아버지의 입지 연풍(延豊)에서 가학을 익혔던 김진화(1793~1850)는 부명으로 김굉(金垵)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이상정의 조카 이우(李塙)가 그의 관례(冠禮)를 주관한 것으로 보아 대산학파(大山學派)의 관심과 보호 속에 성장기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아버지를 시종하는 과정에서, 특히 '단양유배(丹陽流配)'를 목도하는 과정에서 사환의 거친 속성을 체감(體感)했지만 1828년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임명됨으로써 대를 이어 환로(還老)에 진출하게 된다.¹³⁵ 1830년 익종의 창릉 행차시 당당하면서 직설적인 봉직 자세는 초사기의 관운을 터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자문봉사·고공랑·장약주부·한성주부를 거쳐 1832년에는 한성판관에까지 승진했다. 한성판관 재직시 승지 조두순(趙斗淳)의 '결주청탁(乞酒請託)'을 거절한 것은 김중수의 '국법준수론(國法遵守論)'과 맥락을 같이 한다. 조두순은 세도정권의 핵심이었고, 조약을 위해 술을 요청한 것이었지만 그는 원칙에 입각하여 공무를 처결했던 것이다.¹³⁶

한편 김진화는 1833년 6월 아산현감에 임명됨으로써 자신의 경세관

135 김진화의 학자·관료적 성장에 미친 김중수의 영향은 김진화의 『坦窩遺稿』 곳곳에서 확인이 된다. 특히 1812년에 지은 '自歎'이란 시는 일찍이 김중수가 '이루지 못한 男兒의 일, 고인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탄'을 피력한 시(自歎)와 제목이 같을 뿐만 아니라 정서 또한 동일하다(金鎭華, 『坦窩遺稿』 卷1, 〈自歎〉, “虛度光陰二十春 經年經歲舊時吾 從今悟往追來者 道德平林不口驅.”). 1833년 禧陵 祭官으로 차정되었을 때는 인근의 孝陵을 봉심하고는 松檜를 바라보며 孝感에 깊이 젖은 바도 있다. 김중수는 1797년 효릉 참봉 재임시 松檜 수백 그루를 재실 남쪽에 심었는데, 김진화가 봉심했을 때는 이미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이에 그는 아버지(先大夫)에 대한 그리움과 '遺愛'에 대한 감응을 토로한 바 있다(金鎭華, 『坦窩遺稿』 卷1, 〈先大夫丁巳除孝陵參奉手植松檜屢百株於齋室之南〉, “太乙樓西一沼廻 白蓮依舊向人開 今來歷歷前塵感 淚入松杉葉葉哀.”)

136 柳致明, 『定齋集』 卷35, 〈通政大夫行綾州牧使坦窩金公行狀〉, “癸巳 有命禁公私用酒所搜括 藏本府及政院 一日承旨趙斗淳 使人來曰 調藥須用酒 乞少惠 公曰 禁物未可私與.”

經世觀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치민에 있어 그가 역점을 둔 것은 ‘편민便民’이었고, 이를 위해 연봉捐俸의 희생을 감수했다. 아산현감 재임시 아미兒馬를 하사받고 6읍의 사민들이 송덕비를 세운 것에서 목민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1835년 진산군수에 재임시에는 ‘선치수령善治守令’의 명단에 들었고, 그 공로로 인해 청송부사에 이배되었다.

청송에서 주력한 것은 ‘보민保民’과 ‘흥학興學’이었다. 보민은 속리吏吏를 통해 결실을 맺었고, 흥학興學을 위해 교원校院의 중수, 선사選士 및 권학勸學에 부심했다. 이 점에서 1840년(헌종6) 송학서원松鶴書院의 중수는¹³⁷ 흥학사업興學事業인 동시에 김성일의 나주 경현서원景賢書院 창건에 건줄 만한 존현사업尊賢事業이었다. 송학서원 중수에 따른 흥학적 분위기는 청송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무렵 김진화는 이우 등 안동지역 원우의 운영 주체들에게 서간을 보내 강학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강학론講學論은 영남학嶺南學의 활성화를 넘어 시례詩禮와 의리義理의 강명講明을 통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대응책의 일환에서 모색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고, 안동의 수원인 여강서원盧江書院(虎溪書院)이 그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¹³⁸ 여강서원은 이황·류성룡·김성일의 제향처이지만 서원의 운영이 이현일·이재·이상정·이우 등 학봉학통의 석학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강학론은 학봉학 중심의 ‘사림결집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송에서의 흥학론興學論은 1845년 무장현감으로 이배移拜된 뒤에는

137 金鎮華, 『坦窩集』卷2, 〈松鶴書院重修記〉. 청송의 首院인 松鶴書院은 이황·김성일·장현광의 제향처였으므로 김진화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重地였다. 중수기에서 ‘文忠公十代孫知府金鎮華로 記名한 것도 이 때문이다.

138 金鎮華, 위의 책, 〈與各院士友〉·〈上侁齋李公〉.

예교론禮教論과 접목되어 한층 더 심화된 양상을 보였고,¹³⁹ 이 공로로 인해 1848년에는 능주목사로 승진하고, 1850년에는 통정대부에 올랐다. 김성일 이후 종손계통에서 당상관에 오른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김중수가 원칙·감언·결기의 관료관으로써 김성일의 계승성을 드러냈다면 김진화의 경세관은 문교진흥론과 사회교화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김성일의 경세관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특히 나주목사 시절 임관臨官·치민론治民論의 19세기적 응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진화의 흥학론興學論과 사림회강론士林會講論은 두 아들 흥락興洛·승락承洛을 대상으로 하는 교자론敎子論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특히 장자 흥락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지대했다. 이것은 학봉가 학문전통의 영속성에 대한 기대, 관직으로 인해 자신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한 것에 따른 보상의식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흥락의 뜻을 존중하여 과거를 강요하지 않았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김진화의 교육적 열의는 1843년 자신의 생일을 즈음하여 문안하려는 아들을 극구 만류하며 학업에 힘쓸 것을 면려한 서간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¹⁴⁰ 그의 교자론은 학업적 면려를 당부하는 범론에 그치지 않았다. 교재의 필독畢讀 여부를 일일이 점검했고, 야독夜讀의 정도와 취침의 시점까지도 세심하게 가르쳤다.¹⁴¹ 또한 그는 ‘물망물조勿忘勿助’를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 패복하게 했고, 다른 사람과의 논란에서 막힘이 없는 단계에 도달해야 제대로 된 학문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과 ‘경재잠敬齋箴’을 시분時分·지

139 金鎮華, 위의 책, 〈鄉校下帖(荏茂長時)〉·〈書養士齋青衿案後〉.

140 金鎮華, 위의 책, 〈答子興洛(癸卯)〉.

141 金鎮華, 위의 책, 〈與子興洛(甲辰)〉.

두공부(地頭工夫)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¹⁴²

차자 승락에 대한 교육방식은 대단히 직선적이면서도 혹독했다. 유년기에 승락은 행동이 부잡(浮雜)하고, 독서에 힘쓰지 않았으며, 어른들의 가르침도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다.¹⁴³ 그럼에도 사환에 매여 직접 교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되어 이른바 ‘사문지죄인론(師門之罪人論)’, ‘부형지죄인론(父兄之罪人論)’으로서 승락(承洛)의 행실과 학업을 책려했던 것이다.

네 형이 와서 네가 이미 대평(大坪)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네가 만약 독학(篤學)·역행(力行)하여 기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비록 수십년이 될 지라도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¹⁴⁴

대평(大坪) (한들), 즉 류치명의 문하에 공부하려 간 아들을 경계하는 편지인데, 사의(辭意)가 준엄하다 못해 혹독하기까지 하다. 이 장면은 ‘문충공가법(文忠公家法)’이 심엄하여 김성일의 허락이 없으면 ‘좌립(坐立)’과 ‘진퇴(進退)’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김집의 동지(動止)를 연상케 한다. 엄책의 결과 승락(承洛)의 기질과 학업이 크게 호전되자 김진화는 안도와 기쁨을 아래와 같이 피력했다.

앞에 보내온 편지에서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지겠다고 한 말이 있어 가상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가 만약 오로지 이와

142 金鎮華, 위의 책, 〈弟子興洛〉.

143 金鎮華, 위의 책, 〈與子承洛(戊申)〉.

144 金鎮華, 위의 책, 〈與子承洛〉.

같이 입심立心하면, 이는 우리 집안의 복이다. 우리집은 10세 이래로 가풍家風을 준수遵守해 왔으나 나에 이르러 추락함을 면치 못하여 너희 형제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중략] 부화浮華하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효제孝悌와 공근恭謹한 행실을 닦아서 천리 먼 곳에 있는 병부病父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¹⁴⁵

김진화에 있어 아들 교육은 ‘기자교육己子教育’을 넘어 ‘학봉가풍鶴峯家風’의 준수라는 사명감에서 기획·조율되었다. ‘가훈家訓’에서 ‘서책은 유가의 지보이며, 부조의 유택이다’¹⁴⁶고 하며 소중한 관리를 당부한 것에서도 ‘학봉가풍’의 계승에 투영된 그의 심려를 읽을 수 있다.

7. 맺음말

김성일金誠一의 학자·관료적 지식과 인식, 경험과 행위를 통해 축적된 학봉가학은 금계金溪라는 공간을 통해 배양되면서 의성김씨 학봉가문을 유지하는 자양분이자 자산으로 기능했다. 학봉가풍은 효우孝友·예법禮法·의리義理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이런 요소들이 가풍적 틀 속에서 계승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장자 김집이었다. 특히 예법지가禮法之家를 표방했던 학봉가의 지향은 대를 이은 예학적 조예로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행례行禮 중심의 다양한 예서들이 편찬·저술된 것은 특기할만한

145 金鎮華, 위의 책, 〈典子承洛〉.

146 金鎮華, 위의 책, 〈家訓〉, “書冊乃儒家之至寶 而父祖之遺澤也 必令尊閣 井井不亂 或借人 則置簿於冊子 待其畢讀後 卽爲推還.”

사항이었다. 아울러 김성일의 유교적 사리판단력과 강직·충의성에 바탕을 둔 의리론義理論은 손자 김시추金是樞에 의해 ‘적신엄벌론賊臣嚴罰論’(請斬李爾瞻疏)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학봉가풍’은 특정 집안의 가풍을 넘어 국가·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지적知的·정신적精神的 에너지로 기능했다.

한편 학봉가풍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존중의식에 바탕한 교육론이었다. 김주국의 『鶴峯先祖行狀(학봉김선칭행장)』은 학봉가풍의 규방적 준수를 넘어 척연을 통한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고, 김종수의 『여자초학女子初學』은 조선후기 사대부 가문 여성교육의 실상을 거울처럼 비추주는 실례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이런 전통이 부인을 40년 동안 ‘소심경외小心敬畏’했던 김성일의 여성관, 일가 부녀의 교양 및 교육을 교재의 언역諺譯에 중점을 두었던 김집의 치가 방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학봉가풍의 체인성體認性이 매우 강고하면서도 특별했음을 뜻한다.

‘물러섬(處)보다는 ‘나아감(出)에 무게가 있었던 김성일의 출처관은 17세기 이후 조선의 정치적 구조, 즉 서인독주시대라는 장애에 부딪혀 뚜렷한 계승양상을 보이지는 못했다. 이것은 비단 학봉가 뿐만 아니라 영남남인들의 공통적 처지와 환경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학봉가는 학문을 통해 치자로서의 내적 예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으로 출사를 통한 배움의 실천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다. 김종수金宗壽·김진화金鎭華의 출사는 그런 의지의 현실적 획득이었다. 두 사람은 음직으로 출사하여 관료적 현달에 한계가 따랐지만 이들의 관료적 공무 수행관이 학봉의 관료官僚·경세관經世觀에 근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풍의 국가적 쓰임의 단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16세기적 자산의 본질을 취하되, 그것을 18~19세기의 시대적 환경에 맞도록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뛰어난 인간의 역량이라 할 때, 김종수·진화의 관료적 행위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 생각한다.

김성일이 영남사림 또는 학파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인해 학봉가는 탄탄한 사회적 지위를 누려 왔다. 그런 지위의 누림은 사회적 관심과 관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했고, 자연히 학봉가의 ‘가풍家風’·‘가법家法’ 또한 상대적인 노출성이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의 노출은 확산과 유입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가장 일차적인 대상은 외손계열일 것이다. 본고에서 다른 내용은 학봉가풍의 부분일 뿐이다. 본고에서 누락된 지손과 외손을 포괄하여 학봉가풍의 총량에 보다 근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부분은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 2016. 12. 05 : 논문투고

• 2016. 12. 07 ~ 12. 16 : 심사

• 2016. 12. 19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참고문헌

1. 원전

『金溪志』

『日省錄』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權斗寅, 『荷塘集』

金見龍, 『水月齋日記』

金光繼, 『梅園日記』

金 燦, 『定跟齋遺稿』

金 垠, 『溪巖日錄』

金誠一, 『鶴峯集』

金是樞, 『端谷遺稿』

金 涌, 『雲川集』

金允安, 『東籬集』

金應祖, 『鶴沙集』

金宗壽, 『女子初學』

金宗壽, 『聽松遺稿』

金柱國, 『鶴峯先祖行狀(학봉김선칭행장)』

金中淸, 『苟全集』

金鎮華, 『坦窩遺稿』

金 滌, 『愛景堂遺稿』

金 垸, 『龜窩集』

金 然, 『敬窩集』

金興洛, 『西山集』

南夢賚, 『伊溪集』

柳復起, 『岐峰逸稿』

柳致明, 『定齋集』
 李象靖, 『大山集』
 李嵩逸, 『恒齋集』
 李玄逸, 『葛庵集』
 朴時源, 『逸圃集』
 裴龍吉, 『琴易堂集』
 孫處訥, 『慕堂集』
 申悅道, 『懶齋集』
 張顯光, 『旅軒集』
 張興孝, 『敬堂集』
 鄭經世, 『愚伏集』
 鄭 述, 『寒岡集』; 『국역한강집』(한국고전번역원)
 鄭克後, 『雙峯集』; 『국역쌍봉집』(한국국학진흥원)
 趙 綱, 『龍洲遺稿』
 崔 峴, 『訥齋集』
 洪汝河, 『木齋集』; 『국역목재집』(한국고전번역원)

2. 자료집

景泗流芳編纂委員會, 『景泗流芳』(197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文書集成 6 — 義城金氏川上各派篇(Ⅱ)』(199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三國史記』(1) 校勘原文篇(1996)
 韓國學中央研究院, 『安東 金溪 義城金氏 鶴峯宗宅篇(韓國簡札資料選集 12)』(2008)

3. 논저

權五榮, 『1881年の嶺南萬人疏』, 『尹炳奭教授華甲紀念近代史論叢』(1990)

- 권오영, 「鶴峯 金誠一과 安東地域의 退溪學脈」, 『한국의철학』 28(경북대 퇴계연구소, 2000)
- _____, 「鶴峯 金誠一의 學問性向과 歷史意識」, 『민족문화』 25(한국고전번역원, 2002)
- 金時晁, 『鶴峯文學研究』(영남사, 1998)
- 김정신, 「鶴峯 金誠一의 學問論과 居鄕觀 — 「童子禮」·「居鄕雜儀」의 간행과 유포를 중심으로」, 『태도고전연구』 29(태동고전연구소, 2012)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정구 문학의 창작현장과 유적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 29(대동한문학회, 2008)
- _____, 「鄭述(1543~1620)의 학자·관료적 삶과 安東府使 재임」, 『영남학』 17(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_____, 「조선후기 사림계의 김성일에 대한 인식과 평가」, 『한일관계사연구』 43(한일관계사학회, 2012)
- _____, 「17세기 西厓 柳成龍家の 學風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유교문화』 55(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선인, 2002)
- 성병희, 『민간계녀서』(형설출판사, 1980)
- 李樹健, 「正祖朝의 嶺南萬人疏」, 『嶺南史學』 創刊號(1985)
- _____, 「朝鮮後期 嶺南儒疏에 대하여」, 『斗溪李丙齋博士九旬紀念韓國史論叢』(1985)
- 이현진,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예학(禮學)과 『상례고증(喪禮考證)』」, 『민족문화논총』 4(신구문화사, 2008)
- 학봉김선생기념사업회,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여강출판사, 1993)

Aspects of Succession of Family Traditions among
Literati of Chosŏn Dynasty(1392~1910)
— Focusing on the Ŭisŏng Kim Family

Kim, Hak-su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research examines facets of succession of family traditions during the Chosŏn dynasty(1392~1910) in a microscopic fashion by case-studying the Ŭisŏng Kims, the offsprings of Hakbong Kim Sŏng'il(1538~1593).

Family primarily governs perceptions as well as behaviors of a human being, hence excellence and permanency of family traditions are a barometer to determine the social class of a person or a family. A person's intellectual asset is accumulated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nd socialization, including family-related ones. Despite its significance, family has been taken merely as something elementary, given that it is what everyone has.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and capability of family as the core unit which forms a nation. By so doing, how family traditions, which I believe are dispositions in favor of liberal arts are

passed on, developed, and changed is analyzed. Furthermore, how family traditions complement social and national circumstances is shown with a focus on the Hakbong family that descends from Kim Sŏng'il.

Key words

: Family decorum, Kim Sich'u, Kim Sŏng'il, Kim Chinhwa, Kim Chip, Kim Chongsu, Kim Chuguk, *Primary Studies for Young Women*, Studies on Hakbong Family, Theory of Justice

